

통성경 전도 연구를 통한 한국교회의 전도 회복  
: 광진교회 전도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천한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Hankwi Chun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RE-WITNESS OF THE CHURCH THROUGH TONG BIBLE EVANGELISM: A CASE STUDY OF GWANGJIN CHURCH'S EVANGELISM**

Hankwi Chun

Gwangjin Church, Seoul, Korea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contemporary crisis of evangelism in the Korean church, seen in sustained membership decline, the rapid expansion of very small congregations, and the erosion of public trust. Although churches employ many outreach programs, the deeper problem is structural: evangelism is frequently practiced as event-centered recruitment driven by growth metrics, a reduced “decision” gospel, weak post-conversion discipleship, and compromised ethical credibility.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Tong-jeondo (holistic-evangelism) as a biblically grounded and contextually transferable model for Korean congregations. Methodologically, it brings biblical theology and practical theology into dialogue. Evangelism is examined canonically within the redemptive-historical storyline—creation, fall, covenant, exodus, kingdom, exile, restoration, Christ, church, and mission—highlighting evangelism as participation in God’s mission (*Missio Dei*) and as a kingdom-centered practice that forms disciples who embody and announce God’s reign.

As a hermeneutical resource, the dissertation draws on Cho Byung-ho's Tong Bible theology, which reads Scripture as one coherent story centered on the kingdom of God, while also critically evaluating its practical constraints. On this basis, Tongjeondo is defined not as a technique for securing decisions but as a reproducible cycle: gospel proclamation that calls for allegiance and obedience, formative discipleship that shapes character and public integrity, congregational participation in mission, and the multiplication of disciple-witnesses.

The dissertation develops a staged formation pathway—assurance of the gospel, growth, discipleship, ministry, witness, and reproduction—designed for implementation in ordinary church life, including small congregations. A field application in a local setting, accompanied by a survey of program completers, indicates gains in biblical understanding, faith practice, and commitment to disciple-making reproduction. The study contributes a theologically integrated framework that reunites evangelism and discipleship, reframes evangelism as kingdom-centered mission, and offers a sustainable practical alternative for the renewal of Korean church evangelism.

## 국문초록

### 통성경 전도 연구를 통한 교회의 전도회복

천 한 귀

광진교회, 서울, 대한민국

본 논문은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된 교세 감소와 교회 규모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신뢰 하락이라는 한국교회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도 위기’의 신학적·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성경 전체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전도 대안으로서 통전도(通傳道)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전도가 이벤트 중심성, 성장주의, 복음 축소, 제자화 부재, 윤리성 상실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왜곡해 왔다고 보고, 전도와 제자화를 분리해 온 실천을 재구성한다.

연구 방법은 성경신학과 실천신학을 병행하였다. 성경신학적으로는 창조-타락-언약-출애굽-왕국-포로-회복-그리스도-교회-선교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전도의 개념과 양상을 통전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천신학적으로는 한국교회 전도 담론과 현장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원스토리·하나님 나라 중심)을 해석학적 자원으로 참조하되 적용상의 제약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통전도를 ‘결신 확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순종의 제자화, 공동체적 선교 참여, 그리고 ‘제자-증인’의 재생산을 이루는 선순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복음반(확신반)-성장반-제자반-사역자반-증인반-재생산 전도자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양육·훈련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교회 현장에 적용하여 신앙 인식과 실천, 재생산 의식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 전도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경적 본질로 회복시키고, 작은 교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자화 전도 모델을 제공한다.

## 목차

감사의 글 .....	xiv
표 목차.....	x
그림 목차 .....	xii
I. 서론 .....	1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B. 연구 방법과 범위와 한계 .....	7
1. 연구 방법 .....	7
2. 연구 범위 .....	10
3. 연구의 한계.....	10
II.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과 통전도 신학 .....	13
A.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의 개요 .....	13
B. 성경의 원스토티와 하나님 나라 .....	16
C. 통(通)전도 신학 .....	18
1. 1단 통구구단 .....	18
2. 2단 통구구단 .....	22
3. 3단 통구구단 .....	29
III. 성경 속 전도 .....	42
A. 성경회복과 전도회복의 상관성.....	42
1. 전도의 개념 .....	49
2. 구약의 전도 .....	54

3. 예수님의 전도 .....	68
4. 초대교회의 전도 .....	82
IV. 성경적 전도로 성장해 온 광진교회 .....	98
A. 광진교회 전도동력 .....	98
B. 광진교회의 전도철학과 전도원리 .....	100
1. 광진교회의 전도 철학 .....	100
2. 광진교회의 전도 원리 .....	106
C. 광진교의 성경적 전도 .....	108
1. 광진교회의 기도 전도 .....	108
2. 광진교회의 말씀 전도 .....	115
3. 광진교회의 능력 전도 .....	117
4. 광진교회의 성육신 섬김 전도 .....	119
5. 광진교회의 선을 넘는 전도 .....	122
6. 광진교회의 재생산 전도 .....	124
7. 광진교회의 축복의 멘토 양육 시스템 .....	125
V. 통전도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 .....	135
A. 3년 과정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훈련 프로그램 .....	141
B. 개별 과정 .....	147
1. 복음반(확신반) 6주 과정 .....	147
2. 성장반 12주 과정 .....	152
3. 제자반 35주 과정 .....	157
4. 사역자반 27주 과정 .....	166

5. 증인반 13주 과정 .....	171
6. 재생산 전도자반 12주 과정 .....	176
VI. 결론 .....	181
A. 요약 .....	181
B. 제언 .....	182
참고문헌 .....	185

## 표 목차

<표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위원회 교회 규모별 비율변화 .....	2
<표 2-1> 1 단 통구구단과 성경 66 권 시작과 끝 이야기 .....	21
<표 2-2> 1·2·3 단 통구구단 비교표 .....	34
<표 2-3> 기존 전도 프로그램과 통구구단 비교 .....	37
<표 3-1> 구약의 전도 방식들 .....	56
<표 3-2> 예수님의 전도 방식들 .....	69
<표 3-3> 10 년당 40%로 투사한 기독교 인구 성장 .....	83
<표 3-4>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들 .....	85
<표 5-1>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 .....	143
<표 5-2> 1 년차 세부 구조 .....	144
<표 5-3> 2 년차 세부 구조 .....	145
<표 5-4> 3 년차 세부 구조 .....	146
<표 5-5> 복음반(확신반) 6주 과정 .....	148
<표 5-6> 복음반(확신반) 수료자 수 .....	151
<표 5-7> 성장반 12 주 과정 .....	153
<표 5-8> 제자반 35 주 과정 .....	159
<표 5-9> 사역자반 27 주 과정 .....	168
<표 5-10> 증인반 13 주 과정 .....	172
<표 5-11> 재생산 전도자반 12 주 과정 .....	177
<표 5-12> 재생산 전도자반 수료자 설문조사 .....	178

<표 5-13> 설문조사 요약 통계 ..... 179

## 그림 목차

<그림 2-1> 익투스 통트랙 .....	28
<그림 2-2> 통통구구단 통통성경 노래 .....	36
<그림 3-1> 전도 비빔밥 .....	97
<그림 4-1> 태신자 전도를 위한 일천번제 .....	109
<그림 4-2> 태신자 전도를 위한 감사헌금 .....	109
<그림 4-3> 광진교회 전도가 .....	110
<그림 4-4> 천한귀목사 전도명함 .....	111
<그림 4-5> 광진교회 3 시간 돌파 연속 기도 .....	112
<그림 4-6> 1·2·3 시간 기도카드 .....	114
<그림 4-7> 광진교회 100 구절 성경 암송책 .....	116
<그림 4-8> 광진교회 200 구절 성경암송책 .....	116
<그림 4-9> 100 가지 천사운동-연탄배달 .....	120
<그림 4-10> 100 가지 천사운동 후원금품 전달 .....	120
<그림 4-11> 광진 바자회 1 .....	121
<그림 4-12> 광진 바자회 2 .....	121
<그림 4-13> 광진미얀마교회 현판식 .....	123
<그림 4-14> 광진미얀마교회 예배 .....	124
<그림 4-15> 광진교회 재생산 전도자 양육도 .....	125
<그림 4-16> 광진교회 서울성전 2부 예배 .....	130
<그림 4-17> 광진교회 시흥성전 2부 예배 .....	131

<그림 4-18> 전도자 재생산 .....	132
<그림 5-1> 통전적인 전도 방향성 .....	136
<그림 5-2> 새신자 양육계획도 .....	138
<그림 5-3> 포다이아몬드 제자화 재생산 훈련도 .....	140
<그림 5-4> 성장반 기도 모습 .....	154
<그림 5-5> 제자반 수업 .....	161
<그림 5-6> 제자반 과제물 점검표 .....	165

## 감사의 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목회적 전문성과 신학적 깊이를 더욱 성실히 다지고자 시작한 학업의 여정이 한 편의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전 과정 가운데 부족한 연구자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논문은 연구자의 노력의 산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 논문의 학문적 방향성과 신학적 토대를 세워 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Leonard Sweet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연구 주제의 형성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과 교회, 그리고 목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자의 신학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통성경 신학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도를 재해석하도록 이끌어 주신 조병호 박사님의 학문적 통찰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논문 전 과정에서 세심한 지도와 지속적인 격려로 함께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정진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면밀한 학문적 지도와 실천신학적 통찰은 본 연구가 이론과 현장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논문으로 완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사역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설 목사님과 광진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귀한 자료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김서룡 선임행정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은 본 연구를 실제 목회 현장에 뿌리내린 연구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긴 여정의 중심에는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아내 유민수 사모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서포트 해주었기에, 오늘의 이 결실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든든한 존재로 아버지의 길을 응원해 주고 있는 장남 천사무엘과 우리 가정의 자랑인 둘째 천다니엘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 외에도 34년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목회를 지도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의 스승 전주 동성교회 이재균 목사님과 이 여정 속에서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함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 논문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의 전도 회복을 위한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 5

천한귀

# I. 서론

##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잘살아 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의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 급격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1/3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통계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교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교인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양적·질적 차원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통계위원회가 2015년부터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 2024년 교세 통계를 내놓았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임성국 한국기독교공보 기자는 이 심각한 통계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0만 3,204명이 줄었고, 2020년에는 11만 4,066명, 2023년에도 9만 4,700명이 감소하였다. 2015년 278만 9,000여 명에 이르던 교인 수가 10년간 59만 8,183명이 줄어 2024년 말 기준으로 219만 919명으로 감소했다. ... 2024년 기준 전체 교회 수는 9,446곳으로 전년 대비 27곳이 줄었다. 이 가운데 교인 수 100명 이하인 교회는 6,845곳에 이르며, 전체 교회의 72.4%에 달한다. 특히 30명 이하인 교회는 3874곳으로, 전체 교회의 41%를 차지했다. 중간 규모

교회들의 감소세도 나타났다. 교인 수 500~1,000명 사이인 교회는 전년 375곳에서 8곳이 줄어 367곳으로 집계됐고, 100~300명 사이인 교회는 전년 1,497곳에서 1,490곳으로 감소했다. 한편 1만 명 이상 교회는 17곳, 5,000명 이상 교회는 53곳으로 확인됐다.<sup>1</sup>

교회 규모별 비율변화 통계를 보면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sup>2</sup>

교회	2019년	2024년
100명 이하	66.8%	72.4%
30명 이하	33.8%	41%
100~300명	19.0%	15.7%
500~1000명	4.5%	3.8%

표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위원회 교회 규모별 비율변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위의 교세 통계는 한국교회가 구조적 쇠퇴 국면에 진입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총회 통계위원회의 공식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약 278만 9천 명에 이르던 교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219만 919명으로 감소하여, 10년간 약 59만 8천 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 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구조적 하락의 연장선에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회 규모별 분포는 한국교회의 전도 구조가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낸다. 2024년 기준 전체 교회 9,446곳 가운데 교인 수 100명 이하의

<sup>1</sup> 임성국, “10교회 중 7곳 100명 이하 30명 이하…,” 『한국기독교보』, 2025.08.01, [https://www.kd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4&utm\\_source=chatgpt.com](https://www.kd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4&utm_source=chatgpt.com) [2026.01.17. 최종 접속].

<sup>2</sup> Ibid.

교회는 6,845 곳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교인 수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는 41%에 달한다. 반면 중형 교회(100~300명, 500~1,000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계는 한국교회 위기가 개별 교회의 역량 문제나 일시적 사회 현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왜곡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회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sup>3</sup>

현재 한국 교회는 벼랑 끝에 서있다. 한국의 위기가 시작되자 한국교회의 위기도 함께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교회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 평가도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 교회 권력의 세습문제, 돈에 대한 탐욕,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타종교를 향한 십자군 전쟁의 문제, 타락한 중세 시대어나 있었던 교권의 절대화 문제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교회 안팎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이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몰락할 수도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세 감소 현상을 넘어, 교회의 사회적 정당성과 공적 신뢰가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진단하며, 향후 10년이 교회의 생존과 전환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sup>3</sup> 최윤식, 『20202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4.

최윤식의 분석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수동적 결과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윤리적 실패와 구조적 왜곡이 사회적 신뢰 상실로 연결되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 교회 권력의 세습 구조, 물질주의적 가치관, 배타적 종교 태도 등을 한국교회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회의 공공성(account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진단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교단 공식 교세 통계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 교세 통계가 한국교회의 양적 감소라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 최윤식의 미래학적 분석은 그 감소 현상이 왜 사회적 신뢰 붕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교회 전도 위기를 구조적·신학적 문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질적·양적으로 성장하려면 핵심은 전도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봄·가을 총동원 전도, 관계전도, 전도폭발전도, 해피데이 전도, 맞춤형 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소그룹 전도, 세븐 티(Seven T) 전도, 24시 기도운동 연합전도, 알파코스 전도 등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왜 한국교회는 점점 성도는 줄어들고, 신뢰도는 추락하고, 기존 성도들은 가나안교인들로 전환되고, 교회개척 10개를 하면 11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가?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고, 열심히 하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전도하는 것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전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25년 넘게 경험했던 한국교회 전도에서 비성경적인 구조적 문제점들이 보였다. 이를 연구자가 한국교회 전도 담론에 대한 선행연구와 목회적·전도적 비판 논의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재구성 해보았다. 첫째로 한국교회의 전도는 이벤트 중심성에 치우쳐 전도를 일회적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 실적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기인하며, 결국 전도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전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성장주의와 양적 실적 중심의 패러다임** 지배함으로써 결신 카드와 출석 수와 같은 계량적 지표가 전도의 성공 기준으로 기능했다. 이는 명목상 신자 증가라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며, 제자도 중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로 전도의 메시지는 복음의 축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복음이 개인 구원과 심리적 위안, 번영의 약속 등으로 제한되면서 전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적·구속사적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결과 회심 동기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로 이러한 복음 축소는 곧 **제자화 부재**로 이어지며, 결신 이후의 지속적 신앙 성숙 과정이 결핍됨으로써 신앙적 앎, 교회 이탈률 증가, 그리고 삶의 실제적 변화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요컨대, 한국교회의 전도는 이벤트 중심성, 성장주의, 복음 축소, 제자화 부재, 윤리성 상실 등등 복합적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관적으로 작동하여 전도의 성경적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전도는 복음(요 3:16, 14:6)을 전해서 그 복음에 동의하게 만들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에 천국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인구원 중심의 전도가 아니다. 반면에 성경이 통전적으로 밝히는 전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전도다. 다시 말해 피전도자가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믿는 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감정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따름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면과 삶에서 시작되면서 삶 전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고,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가면서 피전도자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전도가 개인의 영혼 구원 중심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 중심 전도였다. 그리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지는 하나님 나라 삶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이들도 피전도자들을 제자삼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 주며, 제자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여 알게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게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도신학의 관점에서는 이벤트성 전도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지적 동의 내지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감정적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여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사후 천국보험을 들어 놓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계속해서 ‘내(I)’ 나라를 만들어 내가 주인 되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어 버렸다. 달리 말하면 그간 한국교회가 교인은 만들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신뢰도 또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저출산, 물질적 풍요, 정보화, 산업화, 정치적 편향과 같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변화와 맞물리며 한국교회의 존립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성경적인 제대로 된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성경전체에 나타난 본질적인 전도를 회복하여 시대가 변해도 지속 가능한 가장 성경적인 전도, 통전도<sup>14</sup> 모델을 만들어 한국교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B. 연구 방법과 범위와 한계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전도의 본질을 통전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성경신학적 연구 방법과 실천신학적 분석 방법을 병행한다. 먼저 성경신학적 차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된 텍스트로 다루기보다, 창조-타락-언약-출애굽-왕국-포로-회복-복음-교회-선교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전도의 개념과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구약의 제사장 나라 개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초대교회의 증인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전도의 성경적 구조를 고찰한다.

---

<sup>14</sup> 통성경 전도 일명 통전도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전도로 그 핵심은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이고 전도를 단지 회심이 아닌 피전도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기 까지를 말한다. 연구자 정의

이러한 성경신학적 접근을 위한 해석 틀로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을 참조한다. 조병호의 통성경 신학은 성경 66 권을 하나의 ‘원스토리(one story)’로 읽으며, 시간·공간·인물·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 통전적 시각이 전도를 단편적 결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지속적 제자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석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통(通)박사 조병호는 통(通)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통(通)은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sup>15</sup> 그는 50년 넘게 성경을 구약 천 번, 신약 이천 번 이상 통독하면서 통(通) 시각을 가지고 통(通)적 사고를 하며 통성경신학을 만들었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병호는 그의 통(通)성경 신학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성경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보다 보면 파편화돼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면 그 속엔 개인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사는 물론이고 히브리 민족의 아픔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성경 66권을 서구의 신학적 관점에서 너무 잘게 쪼개지 말고 나무보다 숲을 보는 동양 신학의 관점에서 덩어리째 보자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등 5,000여 명의 등장인물을 시간, 공간, 인간사로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는

<sup>15</sup>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서울: 통독원, 2009), 85.

것이다. 그렇게 묶은 게 5년 전 까지만 해도 원 역사, 만나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공동체, 신·구약 중간사, 제자시대 등 20개 시대였다. 그런 통신학은 5년 만에 다시 십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성경즐기, 기도, 전도, 역사순 통독이라는 7개 사이클로 업그레이드됐다. 과거엔 단순히 연대기순에 따른 세로축의 역사순 통독이었다면 이번엔 성막·성전의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주요 인물의 기도,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유대인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 세계사(성경과 5대 제국)라는 살이 가로축에 붙었다. 요약하자면 폭이 넓어진 것이다. 성경 66권은 십자가라는 원스토리(one-story)인데, 천지창조부터 요한이 밧모섬에 가는 이야기까지 성경을 굽은 줄기로 봐야 한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속 인물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전도하며 하나님의 세계경영,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sup>16</sup>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쓴 기사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조병호는 성경전체에 등장하는 시간·공간·인간, 개인·가정·나라,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sup>17</sup> 보면서 구약은 왕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 신약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일관적인 구속사적 흐름을 ‘하나님 나라’ 한 단어로 수렴시키고 있다.

연구자도 성경의 고수인 조병호 박사의 통시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인 전도의 의미와 방식을 찾아보려 한다. 다시 말해 조병호의 통통성경 신학을 빌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전도를 연구하려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천신학적 방법을 통해, 한국교회 전도 현실을 분석한다. 즉 교단 공식 통계 자료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교회의 전도가 앞서 제 2 장에서

<sup>16</sup> 백상현, “조병호 성경통독원장 ‘성경 66권을 덩어리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국민일보』, 2017.12.1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694> [2026.01.17. 최종접속].

<sup>17</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23), 18-22.

논의한 5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러한 현실이 성경적 전도 이해의 결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통성경신학적 전도 이해가 실제 교회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도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개별 전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이나 통계적 성과 측정에는 주력하지 않는다. 둘째, 조병호의 통성경 신학을 전도 신학의 하나의 해석 틀로 활용하되, 그의 신학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거나 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셋째, 통전도 신학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연구보다는, 이론적 재구성과 실천적 방안에 연구의 무게 중심을 둔다.

## 3. 연구의 한계: 조병호 통전도신학의 현실적 제약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이 전도 신학의 통합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적·실천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다.

첫째, 통성경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별 본문의 역사적·문학적 긴장과 신학적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전도 현장에서 성경 이야기가 직관적 서사로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나, 해석학적 검증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을 경우 성경 이해가 단순화될 가능성을 남긴다.

둘째, 통전도신학은 암송과 이야기 전달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데,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경 학습 동기와 훈련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을 가진다. 실제 한국교회 현장에서는 담임목회자가 통성경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성도들이 장기적 암송과 반복 훈련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통전도신학이 모든 교회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실천적 한계를 보여준다.

셋째, 통성경 전도는 전도자의 성경 이해 수준과 훈련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전도를 ‘프로그램화’ 하여 단기간에 확산시키는 방식과 달리, 전도자 개인의 지속적 학습과 제자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전도신학은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교회 문화와 구조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넷째, 통전도신학은 이론적으로 전도와 제자화를 통합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제자화 과정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전도 이후의 지속성과 재생산 구조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통전도신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교회 구조와 리더십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성경 신학을 전도 현장의 만능 해법으로 제시하기보다, 비판적으로 수용 가능한 실천신학적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통성경이 제공하는 구속사적 서사 구조와 하나님 나라 중심성을 유지하되, 이를 한국교회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전도 신학으로 재구성하고, 한국교회 전도의 구조적 위기는 무엇이며, 통성경 신학을 어떻게 실천신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과 통전도 신학

### A.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의 개요

먼저 통(通)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에서의 통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통(通)을 ‘한한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깨끗음 ㉡두루 미침 ㉢지나감 ㉣왕래함 ㉤환히 앎 ㉥의사를 전하여 알림 ㉦지장없이 행함 ㉧입신출세함 ㉨사귀, 교제 ㉩간음함 ㉪말함 ㉫전체 ㉬편지나 서류를 세는 단위 ㉭말뚝 ㉮사방십리”<sup>18</sup> 그리고 이 중에서 조병호는 깨끗음, 두루 미침, 전체적으로 봄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통(通)의 사전적인 동사의 의미는 이렇다.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 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히 비치다, 통하게 하다, 건다, 보급되다, 오가다, 왕래하다, 알리다, 전하다, 통보하다, 정을 나누다.”<sup>19</sup>

이 가운데 조병호는 통(通)의 의미를 ‘꿰뚫어 두루 미치다’로 사용하여<sup>20</sup> 통(通)을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 내지는 관통하여 보는 것으로, 본질을 파악하여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通)을 대상을 꿰뚫어 인식하다는 의미로도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걸과 속 전체를 잘 파악했을 때 ‘자네 참, 사람 잘 봤네’라고 말하곤 하는데 ‘보다’의

<sup>18</sup> 이상은 감수, 『한한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2), 1222.

<sup>19</sup>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55.

<sup>20</sup> Ibid.

의미가 물리적 보다가 아니라 꿰뚫어 알아봤다는 의미이다.<sup>21</sup> 그리고 “여러 대상을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꿰뚫어 아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여러 대상을 꿰뚫는 의미를 발견했음을 말한다.”<sup>22</sup>고 주장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와 숲을 보러 갔다고 가정해 볼 경우, 나무들 따로 숲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나무들을 통찰하고, 또 나무들을 보면서 전체 숲을 미뤄 짐작해 보는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최우선시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부분(개별 단어, 문장, 단락, 장, 권, 등등)을 전체적 위치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말해 ‘통(通)’은 그대로 대상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通)성경이란 성경 66권을 부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이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23</sup>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한 서사와 역사를 십자가로 연결된 한 줄기의 원스토리로 파악하는 것이 통성경 신학의 핵심이다. 이러한 통(通)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구속의 큰 줄기(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를 파악하게 되며, 성경 속 인물들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사는 신앙이 가능 해진다고 조병호는 강조한다.<sup>24</sup>

---

<sup>21</sup> Ibid., 62-64.

<sup>22</sup> Ibid., 57.

<sup>23</sup> 조병호, “성경 66 권을 덩어리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국민일보』, 2023년 6월 7일.

<sup>24</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34-35.

조병호는 1994년부터 이러한 “통신학”을 주창해 왔는데, 서구의 분석적 성경 읽기(나무만 보는 관점)를 넘어 동양적 전체 읽기(숲을 보는 관점)로 시간·공간·인물을 아우르며 성경을 덩어리째 읽자는 것이다.<sup>25</sup> 구체적으로 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까지 약 1000년의 역사적 흐름 속에, 5대 제국의 변천과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살핀다.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창조-타락-언약-출애굽-왕국-포로-회복-복음-교회-선교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맥락에서 조병호의 통(通)은 관통성, 총체성, 연결성, 통찰성의 네 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조병호는 통을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으로 꿰뚫어 인식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파악하는 통전적 구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공간·인물을 아우르는 연결 구조를 통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하며, 성경의 부분적인 권이나 장이나 절이나 문장속에 등장하는 한 단어라도 통전적으로 보고 전체속에서 균형잡힌 의미를 찾아내게 한다. 바로 이 점이 연구자가 성경의 본질적 전도인 통전적인 전도를 연구하는데 균형잡힌 신학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조병호의 통신학에서 통(通)이란 개념은 대상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관통하여 이해하되 개별 파편들도 전체 맥락속에서 통전적으로 보고 해석하게 만드는 상보적이며 총체적 보기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은 성경을 파편화된 본문 분석에서 해방시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의 구속사적 이야기로 조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sup>25</sup> 박병호,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 전도: 한시미션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Drew 신학대학원, 2024), 45-46.

중요한 공헌을 지닌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교회 사명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전도 신학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통성경 신학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성경 전체를 서사적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개별 본문의 역사적·문학적 긴장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 암송과 이야기 전달에 초점을 둔 교육 구조는 해석학적 검증보다는 직관적 이해에 의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 개념이 다양한 본문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신학적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 해석의 확장성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이를 전도 신학의 통합적 틀로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즉 통성경이 제공하는 구속사적 서사 구조를 유지하되, 전도를 ‘암송 기법’이나 ‘이야기 전달 방식’이 아니라, 제자화와 재생산 전도자 양성을 포함하는 신학적 과정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통전도 신학의 학문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 B. 통성경의 ‘원스토리’와 하나님 나라

조병호 통(通)신학의 중심 개념은 “십자가 복음 원스토리”와 하나님 나라이다. 성경 66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한 편의 구속 드라마이며, 이를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두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조병호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A Kingdom of Priests)로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구약의 줄거리’라고 보았다. 그는 제사장 나라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간에 나눔이 있는 나라, 열방과 평화가 있는 나라, 성전과 장자를 향한 나라<sup>26</sup>로 정의하며, 구약 1500년 역사는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성소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1,500년간 이어진 제사장 나라 시대가 마감되고 “하나님 나라” 시대가 열렸다고 설명한다.<sup>27</sup>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심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성전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조병호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도 다섯 가지로 정의하는데, 예컨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완성한다고 본다.<sup>28</sup> 이러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수렴을 통해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원스토리를 제시한다. 곧 구약은 제사장 나라의 모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씨앗이고, 신약은 그 씨앗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통전적 해석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라는 구속사적 흐름으로 수렴하는 것이다.<sup>29</sup>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들은 직간접적으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도(Missio Dei)<sup>30</sup>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경적 전도란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에 기반해야 온전한 전도가 이뤄진다고 본다.

<sup>2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47-48.

<sup>27</sup>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서울: 통독원, 2018), 8-10, 220.

<sup>28</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7-48.

<sup>29</sup> 박병호,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 전도』 (목회학 박사 논문, Drew University, 2024), 45-46.

<sup>30</sup>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는 전도의 개념이 선교의 개념까지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전도’라고도 혼용해서 부른다.

### C. 통(通)전도 신학

통전도 신학은 성경의 구조를 단순히 신·구약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 구원 역사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독특한 구조화 작업을 시도한다. 그중 하나가 성경을 세계사 속에서 이해하는 다중 구조이다. 조병호는 성경을 시간적으로 개인·가정·민족 차원의 사건들로 읽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열방(5대 제국)의 관계 속에서 읽는다.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고대 세계제국의 흐름을 알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등의 맥락이 선명해지며, 하나님께서 열방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세계경영적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1</sup> 예컨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을 때 하나님은 이방 제국들을 도구로 들어 쓰셔서 징계와 정화를 이루시고(사10:5-6), 때가 찼을 때 로마 제국의 언어·도로망 등 환경을 통해 복음이 급속히 퍼지게 하셨다. 이처럼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통전도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한 보편적 복음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통전도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 모든 구분선을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인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고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병호 박사는 통구구단들을 만들어 전도자에게 전도의 무기를 제공해주었다.

#### 1. 1단 통구구단

---

<sup>31</sup> 박병호,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 전도』, 118-120.

조병호는 통전적 사고를 쉽게 전파하기 위한 교육 도구로 「성경 구구단」(통통구구단)을 창안하였다.<sup>32</sup> 한국인들이 누구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구구단을 암송하듯, 복잡한 성경 66권의 주요 내용을 단 몇 분 만에 암기하여 복음의 큰 그림을 전하도록 개발된 전도 도구이다. 성경 구구단표는 성경 각 권의 “시작 이야기”와 “끝 이야기”를 한눈에 정리하여 암송하게 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1단 구구단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까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연결했다.

트랙	성경		시작 이야기	끝 이야기
1. 모세5경	1	창세기	천지창조	요셉유언
	2	출애굽기	갈대상자	성막봉헌
	3	레위기	5대제사	서원예물
	4	민수기	인구조사	슬로브핫법
	5	신명기	모압평지	모세죽음
	6	여호수아	입가나안	요셉장사
	7	사사기	유다지파 땅 정복	베냐민지파 쇠락
	8	룻기	모압 이주	보아스 족보
2. 왕정 500년	9	사무엘상	한나기도	사울자결
	10	사무엘하	다윗애가	다윗제사
	11	열왕기상	솔로몬 즉위	아합 죽음
	12	열왕기하	엘리아의 불	남유다 멸망
	13	잠언	솔로몬 잠언	르무엘 어머니
	14	아가	솔람미 여인	죽음보다 강한 사랑
	15	전도서	해아래 헛수고	청년 때
	16	욥기	하늘자랑 욥	욥의 기도
	17	시편	복있는 사람	호흡있는 자

<sup>32</sup> 조병호, 『성경통통독 통통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머리말.

	18	아모스	각 나라 죄	본토에 남은 자
	19	호세아	고멜과 결혼	호세아 절규
	20	요나	다시스 배	박녕쿨 비유
	21	이사야	이사야가 본 계시	새 하늘 새 땅
	22	미기	두 도시에 대한 묵시	하나님 찬양
	23	스바냐	여호와와의 날	남은자의 명성
	24	하박국	하박국 질문	하박국 찬양
	25	나훔	니느웨 경고	니느웨 황무
	26	요엘	메뚜기 비유	그날에 대한 예언
	27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름	불타는 예루살렘
	28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곡	예레미야 기도
	29	오바댜	에돔 멸절	나라가 여호와께
	30	역대상	아·아 족보	다윗 예물
	31	역대하	솔로몬 번제	고레스 명령
3. 페르시아 7권	32	에스겔	에스겔 부름	여호와 삼마
	33	다니엘	1차 포로	마지막 때 예언
	34	에스라	귀환 명령	에스라 개혁
	35	학개	건축 시기	내중 스룹바벨
	36	스가랴	다리오 왕	남은자 초막절
	37	에스더	왕의 잔치	부림절 제정
	38	느헤미야	금식기도	안식일 개혁
	39	말라기	사랑 고백	아버지 마음
4. 중간사 400년	신구약 중간사			
5. 4복음서	40	마태복음	아·다 족보	지상명령
	41	마가복음	세례요한	우편좌정
	42	누가복음	세례요한	예수승천
	43	요한복음	태초말씀	부활조찬
	44	사도행전	예수승천	죄수바울
	45	데살로니가 전서	믿는 자의 사랑	강림강조
	46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격려	규모있는 신앙

6. 사도행전 30년	47	갈라디아서	오직복음	예수혼적
	48	고린도전서	교회안부	예루살렘교회 연보
	49	고린도후서	교회안부	세 번째 갈 계획
	50	로마서	교회안부	서로 문안
	51	에베소서	창세전 예정	두기고 파송
	52	빌립보서	감사와 간구	선물 감사
	53	골로새서	교회안부	친필문안
	54	빌레몬서	빌레몬 칭찬	오네시모 형제
	55	디모데전서	믿음의 아들	선한싸움
	56	디도서	디도 남긴 이유	급히오라
	57	디모데후서	디모데 가족	속히오라
7. 공동서신 9권	58	히브리서	구약 선지자들	예수께 나가자
	59	야고보서	열두 지파에 문안	의인의 간구
	60	베드로전서	부활소망	장로들에 권면
	61	베드로후서	장막 벗을 날	성경 역지로 풀지 말라
	62	유다서	힘써 싸우라	궁홀히 여기라
	63	요한일	하나님과 사귄	하나님께 속한 자
	64	요한이서	서로 사랑 당부	사도 요한 소망
	65	요한삼서	가이오 축복	사도 요한 소망
	66	요한계시록	밤모섬 요한	속히 오리라

표 2-1. 1단 통구구단과 성경66권 시작과 끝 이야기<sup>33</sup>

조병호 박사의 1단 통구구단은 성경 66 권 각각의 시작 이야기와 끝 이야기를 연결하여 암송하도록 구성된 통성경 교육 도구이다. 이는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요약하는 3단 통구구단과 달리, 각 권의 정체성과 신학적 핵심을 기억 구조 속에 정렬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즉 1단 통구구단은 성경을 “원스토리”로 말하기 이전 단계에서, 각 권이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인식하게 하는

<sup>33</sup>Ibid, 12-13.

구조적 기초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훈련 도구로서, 성경 각 권이 전체 구속사 이야기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도구의 특징은 성경을 곧바로 ‘원스토리’로 요약하기에 앞서, 각 권의 개별성과 신학적 방향성을 먼저 구조화 한다는 점에 있다. 성경 66 권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방식은 본문을 단편적 사건이나 교리로 이해하는 접근을 넘어, 각 권의 신학적 흐름과 결론 지점을 기억 구조 속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성경을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시작과 완성을 향해 전개되는 정경적 이야기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인식 훈련은 성경 읽기의 지속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본문 해석의 방향성과 신앙 언어 체계를 형성하는 기초 단계로 작용한다. 특히 통전도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1단 통구구단은 성경 기반 전도와 제자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을 제공하며, 한국교회 성경 교육이 지닌 분절성과 단기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 2. 2단 통구구단- 익투스 7통트랙 각각 10분 스토리 압축 암송하기

조병호 박사는 성경을 물고기 모양에 7개 트랙(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과 각각의 트랙에 판소리처럼 몇 개씩 마당들을 덧붙여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통으로 하나님 나라(구약은 제사장과 왕을 대리자로 세운 하나님 나라, 신약은 예수 제자인 성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수렴하고 있음을 한눈에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눈에 파악하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고 있음을 통찰해 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통(通) 시각을 가지고 조병호 박사가 생산해 낸 신학이 통(通)신학이다.

a. 통(通)트랙1(모세 5경)

조병호 박사는 모세5경을 통으로 보며 왕 중심이 아닌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모세5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setup)’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A kingdom of Priests)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19:5-6)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킵니다.<sup>34</sup>

b. 통(通)트랙2(왕정 500년)

조병호 박사는 선지자와 왕의 대립과 협력 속에 경영된 제사장 나라 즉, 사울

<sup>34</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0), 20.

왕에서부터 바벨론에 의해 망할 당시 시드기야 왕까지 대략 500년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5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8:6~7)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A Kingdom of Priests)’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냈습니다.<sup>35</sup>

### c. 통통트랙3(페르시아 7권)

조병호 박사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된 제사장 나라 즉,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제국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sup>35</sup> Ibid., 112.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3:19-23)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sup>36</sup>

#### d. 통통트랙4(중간사 400년)

조병호 박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 말라기 선지자 후 세례 요한 등장 전까지 약 400년의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 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 시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 때에는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여러 분파(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sup>37</sup>

<sup>36</sup> Ibid., 210.

<sup>37</sup> Ibid., 252.

## e. 통통트랙5(4복음서)

조병호 박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4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셋업(setup)’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4~15)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 f. 통통트랙6(사도행전 30년)

조병호 박사는 복음 1세대(사도)들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룬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 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행 4:6~10)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4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 g. 통통트랙7(공동서신 9권)

조병호 박사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 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6~8) 바울을 비롯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결국 A.D. 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 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sup>38</sup>



그림 2-1. 익투스 통트랙

본 연구는 통전도신학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서 「2 단 통구구단」을 활용한다. 2 단 통구구단은 성경 66 권을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이라는 일곱 개의 구속사적 트랙으로 구분하고, 각 트랙을 핵심 서사 중심으로 압축하여 제시한다.

이 구조의 특징은 성경을 단순한 연대기나 교리 체계로 배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왜곡·회복·확장’되어 가는지를 서사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있다. 각 트랙은 제사장 나라의 설정, 왕정의 긴장과 붕괴, 제국 속에서의 회복 시도, 메시아 도래를 위한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sup>38</sup> Ibid., 400.

나라의 완성, 성령을 통한 확장, 그리고 박해 속에서의 증언 공동체 형성이라는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서사 압축 방식은 성경을 부분적 본문이나 교리 단위로 소비하는 기존 성경 교육의 한계를 넘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정경적 이야기로 파악하게 하는 인지 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통전도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2 단 통구구단은 성경의 메시지를 ‘10 분 내러티브’ 단위로 재구성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재서술(re-narration)할 수 있도록 돕는 통전도의 중간 단계 도구로 기능한다.

### 3. 3단 통구구단- 성경 전체를 원 스토리로 암기하기

통성경 구구단 3단은 성경 전체 스토리를 10분에 안에 요약해서 원 스토리로 암기하는 것이다.<sup>39</sup>

1. 창세기는/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흥년에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열두 아들로 열두 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sup>39</sup> Ibid., 115-118.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흥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룯기는/ 사사 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2.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세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읊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8세기 앗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3.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스키타, 학개,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산헤드린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4.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때에/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 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함으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략시킵니다.

5.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밀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므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6.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열두 사도들이 제자 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 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 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다음 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던 중,/ 산헤드린 공회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교론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7. 그런데/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 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그 내용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 30여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3 단 통통구구단은 성경 66 권을 개별 권별 지식이나 단편적 본문 암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의 구속사적 원스토토리로  
압축·암송하도록 설계된 교육 도구이다. 이를 암송한 학습자들은 성경을 더 이상  
“흩어진 이야기들의 집합”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수렴되는  
단일 서사 구조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에서 강조하는  
관통성·연결성·총체성의 실제적 구현으로, 성경 해석의 출발점을 본문 분석이  
아니라 전체 구속사의 흐름에 두게 만든다. 그 결과 성도들은 특정 본문을 접할

때에도, 그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기능·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사고하게 된다. 그리고 암송자들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전도의 본질이 단순한 결신 유도가 아니라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교회는 제자 재생산 전도 양상들이 펼쳐짐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전도(Misso Dei)를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전도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스토리를 전하는 행위로 재정의된다.

이 원스토리 구조는 성경을 단순한 사건 나열이나 교리 체계로 환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 이전의 창조에서 시작되어 제사장 나라의 설정, 왕정과 제국 속에서의 왜곡과 심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성령을 통한 확장,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통합한다. 이러한 서사적 통합은 성경신학이 지향하는 정경적 읽기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통전도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3단 통구구단은 성경 이해의 최종 단계로서, 성도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재서술(re-narration)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제자화의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 이는 전도를 교리 전달이나 결신 유도로 환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스토리를 삶과 언어로 증언하는 행위로 재정의하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구분	연구 성격	기능	논문 내 위치
1단 통구구단	구조적 기초 인식 도구	권별 정체성 인식	해석학적 기초
2단 통구구단	정경적 서사 압축 모델	성경 전체 흐름 인식	전도·제자화 중간

3 단 통구구단	신학적 메타-내러티브 모델	원스토리 재서술	통전도 신학의 완성 단계
-------------	-------------------	----------	------------------

표 2-2. 1·2·3단 통구구단 비교표

통구구단은 성경 이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키는 인식 구조로서, 해석학적 기초에서 통전적 전도 신학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신학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1단 통구구단은 성경 각 권의 구조와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기초적 도구로 기능하며, 이는 본문 해석을 위한 최소한의 해석학적 토대를 형성한다.<sup>40</sup> 이 단계는 성경을 단편적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성된 문헌으로 읽게 하는 역할을 한다.

2단 통구구단은 개별 권을 넘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정경적 서사 압축 모델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성경의 시작과 종말, 구속사의 흐름, 그리고 핵심 전환점을 파악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sup>41</sup> 이러한 정경적 인식은 전도와 제자화 과정에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다.

3단 통구구단은 앞선 두 단계를 종합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메타-내러티브를 재서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원스토리로

<sup>40</sup> 조병호, 『통통성경』 (서울: 통독원, 2018), 21-29.

<sup>41</sup> Ibid., 33-41.

재구성된다. 따라서 3 단 통구구단은 성경 이해의 종착점이자, 통전도 신학이 완성되는 단계로 기능하며, 전도·선교·제자화의 신학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sup>42</sup>

특히 한국인의 암송 친화적 문화(구구단·고전 암송 전통)와 결합될 때, 성경 스토리는 논리적 지식이 아니라 몸에 밴 언어, 곧 언제든지 꺼내어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 자산이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선조들이 어려서부터 사자소학·논어·맹자·중용·대학 같은 고전들을 암송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약 1000 년 동안 과거시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인에게는 암송 하나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이다. 그리고 수학에서 구구단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 암송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마찬가지로 통구구단을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암송시켜 준다면 어려서부터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의 배출이 기대된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한 이야기로 전하는 것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뇌에 새겨져서 전도에 유용하다. 조병호 박사는 아예 다음과 같이 노래로 만들어 입과 귀와 뇌에 새겨져 성경 흐름을 체득화 시키도록 도왔다.

---

<sup>42</sup>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389-393. 통전적 전도 이해와 Missio Dei 의 연결.

## The Song of TongBible 통통성경 노래

Lyrics Byoungho Zoh(작사: 조병호)  
Composition Tong Orchestra(작곡: 통오케스트라)

『성경통독』 200마당의 제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God ex-presses his heart Dream for all na-tions Manna gene-ra-tion Suc-cession of-faith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대 신앙계승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Model for a thousand years Mind and-wis-dom Line of love line of mi-ssion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심상, 삼하, 왕상 1~2장 왕상 3~11장, 잠, 아, 전, 욘, 시 왕상 12~22장, 왕하 1~20장, 암, 호, 은, 사, 미

Hope-stand-ing be-fore des-pair Punishment a-ste-pping-stone of hope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희망의 디딤돌

왕하 2~25장, 습, 한, 나, 율, 렘, 예, 욘, 대상, 대하 에스겔, 다니엘

A co-mmu-ni-ty of re-cons-truc-tion A blank page-full of his-to-ry A  
재건 공동체 어떨게와이렇게사이

스학, 속, 예, 느, 말 신구약 중간사

joy-ful-bir-th Love for-one-soul Pa-ssion to-wards for give-ness  
기쁨위한탄생 한영혼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In-vi-ta-tion to glo-ry and pea-ce The dis-ci-ple e-ra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요한복음 사도행전 1~12장

Extension of the gos-pel with no-boun-da-ries E-ter-nal-crown and-han-ded-down re-quest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행 13~19장, 삼전, 삼후, 갈, 고전, 고후 행 20~28장, 롬, 열, 빌, 골, 몬, 담전, 딤후

Le-tters for the-righ-teous fight and Song of vic-to-ry-pre-re-ceived  
선한 싸움 위한 편지 승리 노래

히, 약, 빌전, 빌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

성경통독 전문출판사 통독원  
02-525-7794 / tongbooks.com

그림 2-2. 통통구구단 통통성경 노래<sup>43</sup>

<sup>43</sup> 조병호(작사), 통오케스트라(작곡), “통성경 노래,” 악보 사진, 성경통독원 홈페이지, <http://tongdok.net/main/sub.html?pageCode=57> [2025.06.25. 최종 접속].

사람이 문장으로 외우는 것보다 노래를 만들어 반복해서 몸에 배게 한다면 잊어버리고 싶어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소그룹 모임에서나 소그룹리더 세미나나 전도특공대 모임 등등 계속해서 부르게 하였더니 성경 전체가 꿰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기존 전도 프로그램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분	기존 전도 프로그램	통통구구단
전도 중심	결신·출석 중심	하나님 나라 원스토리
방법	이벤트·프로그램	암송·이야기 전달
복음 이해	개인 구원 중심	구속사·하나님 나라
지속성	일회성	반복 암송으로 지속
제자화	결여 또는 약함	암송 기반 재생산
전도자	일부 훈련된 성도	모든 암송자
성경 이해	단편적 본문	통전적 구조

표 2-3. 기존 전도 프로그램과 통통구구단 비교

이 비교표는 통통구구단이 기존 전도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학적·교육적 대안 모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통구구단은 성경을 통으로 암송하게 함으로써 성경 이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전도를 하나님 나라 원스토리 증언으로 회복시키며, 제자화와 재생산 전도자 양성이 가능한 기억 기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교회 전도의 위기를 방법론이 아닌 신학적 토대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도 성경 구구단들을 외워보니 성경 전체가 통으로 꿰어졌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란 한국 속담처럼 창세기에서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의 스토리가 파악되면서 성경의 숲을 볼 수 있었고 개별 권속에 들어가 속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 내용들이 전체 성경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본 연구자는 이를 실천적 적용 사례로 관찰하였다.

조병호는 ‘The Third Millennium 시대와 통성경(Tong-Bible) 강의에서 “통성경(Tong-Bible)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꿰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통합하는 동시에 각각의 맛도 살리는 것이다”<sup>45</sup>라고 말했다. 이것을 연구자는 ‘비빔밥신학’이라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 비빔밥’은 양푼같은 보통 이상의 큰 그릇에 밥, 고추장, 열무김치, 참기름, 소고기, 달걀, 산나물, 김 가루 등등을 넣고 잘 비벼서 크게 한 술 떠먹는 것이 예술이다, 밥은 논에서, 나물은 산에서, 김 가루는 바다에서, 달걀은 하늘에서, 열무김치와 참기름은 밭에서 각각 육·해·공 출신들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다. 하지만 양푼이란 그릇에서 일단 비벼지면 참기름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각자 각자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통합된 제3의 맛을 창조해낸다.

---

<sup>45</sup> 202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The Third Millennium 시대의 선교와 AI’ 세미나 강연에서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 내지는 준거나 해석의 틀이다. 연구자는 조병호 박사를 통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시간을 하나로, 공간을 하나로, 수많은 인물을 하나로,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보는 ‘통通훈련’을 받았다.

조병호 교수의 통(通)성경은 성경 전체를 역사적 연속성과 문학적 구조 안에서 하나의 ‘메타내러티브’로 읽도록 돕는 통전적 성경 이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는 성경통독 운동과 교재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소비하게 만든 폐해를 없애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 읽고 해석하는 통신학이야말로 오늘날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전도를 회복할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전도신학은 단순한 성경 읽기 기술을 넘어, 하나님이 시간·공간·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길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통전도신학은 본질적으로 전도해석학적 성경 읽기와 무관하지 않다.

성경에 제대로 근거한 전도신학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전도 외치며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설사 일시적 수적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증가했지 실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듭난 성도 수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회로 하여금 유사(類似) 전도 행위를 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 이런 전도 유사 행위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은 이런 일침을 놓았다.

전도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성도의 평행이동이 아니다. 전도는 축제로 이뤄지는 간헐적인 행사가 아니다. 전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결신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시스템이 아니다. 간단한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며 구원을 강조하는 일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도는 단순히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전도는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다. 전도는 단순히 복음의 선포나 소개가 아니다. 전도는 일부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sup>46</sup>

마이클 그린에 따르면 전도는 교회의 숫자를 늘리거나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삶 전체로 증언하는 공동체적 사명이다. 전도는 특정한 행사나 기술, 반복적인 결신 요구로 환원될 수 없으며, 목회자나 일부 신자의 전유물도 아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듯이 전도는 모든 성도가 일상 속에서 관계와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며, 말과 삶, 공동체의 실천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적 증언이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현재 속에서 살아내는 선교적 삶의 표현이다.

연구자가 그간 섬겼던 교회들에서 총동원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도행사 당일엔 몰려왔던 수백의 사람들이 그 다음주에는 1/10 정도 나온다. 그러다가 한 달 뒤면 평상시와 똑 같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전도일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다. 과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을까? 제대로 된 전도신학이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00년대 들어와 한국교회의 급격한 쇠락은 단순한 외적 현상이 아니라, 전도의 본질을 왜곡한 전도 신학 문제와도 맞닿아 있었다. 성경의 부분적 본문 해석이나 단편적 전도 기법에서 기인한 전도 신학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sup>46</sup> 김남식,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 『신학과 실천』 제 46 호(2015.09), 492-493.

전도의 핵심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전도의 방법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본질적 전도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도의 기법(Evangelism Method)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 신학(Evangelism Theology)의 기반이 약해서 기독교 역사 150년도 안되어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구약과 신약의 분리된 텍스트 안에서 혹은 성경 일부에서 전도를 들여다보는 파편적인 전도 시각인 아닌, 창조-타락-언약-출애굽-왕국-포로-회복-복음-초대교회-선교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속에서 통(通)성경적 시각으로 전도를 통찰해 보고자 한다.

### Ⅲ. 성경 속 전도

#### A. 성경회복과 전도회복의 상관성

Drew Seminary 김영래 교수는 오늘날 교회 위기가 ‘성경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대 이후 교회는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해석이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반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둘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로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한쪽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잃었다.<sup>47</sup>

요약하자면 온전치 못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에서 성경에 대한 신뢰만 잃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전도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글로 된 모든 책은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의 한계 속에서 중의성(重義性)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가령 성경에 ‘말’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말이 타는 말인지,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곡물을 담아 측정하는 말인지 상황과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성경에 쓰인 텍스트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문화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국인 어머니

---

<sup>47</sup>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6), 229-230.

이야기가 있다.

1987년 5월 2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믿기 어려운 비극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여성 Chong Sun France가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어린 아들 Moses가 텔레비전과 가구에 깔려 숨져 있었다. 아이는 가구 위에 놓인 텔레비전을 만지려다 가구가 넘어지면서 압사당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는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머니는 직장에 나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I killed my son, I killed my son...)” 라고 외쳤다. 지금 이 어머니는 살인을 자백한 것일까? 그 어떤 한국인도 어머니의 외침을 “살인자의 자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로 이해한다. 한국인의 심성상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했던 미국 경찰은 어머니의 말을 “살인자의 자백”으로 해석했다. 결국 어머니는 체포되어 중범죄 아동 학대(felonious child abuse)와 24급 살인죄(second degree murder)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20년 형을 선고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성 교정시설에 가뒀다.<sup>48</sup>

이 사례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이 동일한 언어 표현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 어머니의 죄책감 어린 절규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해석 주체의 문화적 전제가 의미 이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사례는 성경 해석과 전도에서 문화적·정황적 맥락을 배제한 문자적 이해가 심각한 의미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 해석 예이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 경찰이나 판사가 가난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지 못해

<sup>48</sup> 이상환, 『신들의 신 예수: 그리스-로마의 눈으로 신약의 예수님 보기』 (서울: 도서출판학영, 2025), 74-75.

가구가 쓰러져 죽었던 아이 엄마의 죄책감으로 인해 “자기가 죽였다(I killed my son)” 고 한 절규를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고대 가나안 땅의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여 오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이다. 당시 요한은 소아시아 7굽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 이 글을 썼다. 요한과 제1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666’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 상황이었기에 로마 관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숫자 666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을 현혹한다. 유대인들은 ‘케마트리아’라 하여,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666을 적그리스도인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암호화한 것이다.<sup>49</sup>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본문 중 하나가 이 말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30) 대부분 성경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구절들에 쓰인 ‘멍에’를 말이나 소나 나귀가 메는 무거운 짐으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1세기 유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기독교 및 유대 학자들로 구성된 두뇌 집단인

<sup>49</sup> 박수암, 『신약주석 요한계시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18-222,

예루살렘 공관복음 연구학교의 창립 멤버인 데이빗 비빈(David Bivin)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님 시대의 글과 문화에서 ‘멍에’의 의미를 공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는 랍비와 그의 철학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헌신해야 한다. 제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이 따르는 랍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랍비의 ‘멍에’를 메는 것이라라고 전해진다. ‘멍에’라는 말을 들으면 소가 메는 것이 생각나고 그것은 곧 무거운 짐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확한 문맥으로 보면 랍비의 멍에를 메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스승과 같은 짐을 지고 가기를 바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스승의 멍에와 수레에 기꺼이 묶는 것이다.<sup>50</sup>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멍에나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의 가르침(교훈), 철학, 삶을 의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철학, 삶, 지혜, 가르침 등등을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며 살 때 그 마음에 참 쉽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1 수신자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한참이나 뛰어넘어 사는 제2 수신자인 현재의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인 당시의 언어, 문화, 수사, 세계관, 지리, 역사 등 배경을 정확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날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정확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때, 거기서, 그에게 무슨 의미였는지가 명확해야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강단에서의 설교들은 어떠한가? 설교자마다 해석들이 거의 다 다르다. 그것도 통합적 일원론에 근거한 히브리적 철학에 기반을 둔 해석이 아니라 헬라의 대립적

<sup>50</sup> 데이빗 비빈,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이상준 역 (서울: 이스트윈드, 2023), 67-68.

이원론 철학에 근거한 해석들이다. 이에 성경이 바르게 회복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성경 속에서 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마다 전도전도하며 빌립전도, 전도폭발, 브릿지전도, 사영리 전도, 총동원 전도, 오이코스 전도 등등 많은 전도 방법들을 쓰고 있다. 전부다 선포 중심적인 ‘케리그마식 전도방법’ 들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화 같은 가르침 중심의 ‘디다케식 전도’ 가 있다. 유독 한국에서 선포 중심의 전도가 대부분인 이유를 김남식 서울신학대 교수는 성경 번역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한글성경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제자의 수가 3천명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행 2:41). 하지만 ‘제자’ 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분명 ‘프슈카이(ψυχαί)’, 즉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제자의 의미를 가진 단언 ‘마세테스(μαθητής)’ 를 몰라서 안 적었을까?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프슈카이’ 를 영혼 혹은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주요 한글 성경 번역은 ‘제자’ 혹은 ‘신도’ 로 번역하고 있다. 특히 ‘신도’ 라는 표현은 ‘일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 을 의미한다. 이는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롬 1:7, 고후 1:1, 빌 1:1). 여기서 성도는 ‘하기오스(ἅγιος)’ 를 뜻한다. 그리고 ‘하기오스’ 라는 단어는 성화를 말하는 ‘하기아스모스(ἁγιασμός)’ 와 연관된다.

‘하기아모스’ 는 곧 성화, ‘성전에 이르는 길’ 을 말하는데, 만일 ‘프슈카이’ 에 담긴 영혼이라는 의미를 제자 혹은 신도로 번역할 경우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제자가 되고 신도가 된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며 훈련하신 사실과도 모순된다.<sup>51</sup>

김남식 교수는 사도행전 2 장 41 절에서 ‘프슈카이(ψυχαί)’ 를 ‘제자’ 또는 ‘신도’ 로 번역한 한글 성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심과 제자화를

<sup>51</sup> 김남식,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 496.

동일시하는 번역이 성경 본문과 신약 신학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자 형성이 단회적 설교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 훈련의 과정임을 강조하며 제자화(discipleship)를 구분하지 않는 전도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해석학적 근거로 기능한다.

김남식 교수는 미세한 성경 번역의 오류가 한국교회의 총동원전도와 같은 식의 ‘선포=구원=제자화’란 잘못된 공식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며 복음을 선포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심지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박으소서’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질되기도 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삼아 동행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일정 훈련도 시키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숙성이 되었을 때 전도자로 파송하셨던 것이다.

잘못된 성경해석이나 숫자 지상주의 교회성장 신학은 반드시 폐해를 낳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만 알면 전도에 관한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지고 전도 방식도 그르칠 수 있다. 이러하기에 연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통으로 살피는 가운데 제대로 된 전도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전도 방안을 만들어 교회에서 실천해 보려 한다.

## B. 통(通)으로 본 성경 속 전도

전장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조병호 박사의 통(通)성경은 한 마디로 ‘성경을 통으로 본다.’라는 말이다. 조병호 박사는 그의 통(通)적 시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꿰뚫어 이해하다. 말하자면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通達), 관통(貫通)하도록 보는 것이다. 막힘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한 번에 쥐어 잡는 것이다.<sup>52</sup>

조병호 박사의 통(通)시각은 대상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전체를 관통하여 본질과 구조를 동시에 파악하려는 인식 방식이다. 이는 대상의 시작과 전개, 완성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며,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핵심 의미를 통달적으로 인식하는 해석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인물별, 사건별, 연대기별, 장르별, 전쟁별, 혹은 특정 하나의 단어 가령, 마음, 제사, 피, 양, 무화과나무, 떨기나무, 십자가, 갈대, 베들레헴, 헤브론 기타 등등이 있다. ‘눈물’이란 한 단어를 조병호 박사는 요셉, 다윗, 예레미야, 느헤미야, 예수님, 바울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 눈물로 엮어 통(通)으로 보았다.<sup>53</sup>

<sup>52</sup>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62-63.

<sup>53</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3), 218. 요셉의 눈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창45:2). 다윗의 눈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삼하1:11-12);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삼하3:33);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6:6). 예레미야의 눈물: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애2:11). 느헤미야의 눈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1:4). 예수님의 눈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11:35);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눅19:41). 바울의 눈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20:31). 마지막 눈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통(通)박사 조병호는 성경 전체에서 눈물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피면서 인물과 함께 시간, 공간, 역사, 가정, 신앙, 세계관 등등을 담아 통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고통과 눈물로 영롱한 보석을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와 연관 짓고, 진주조개의 눈물을 고난 그리고 그 결과물인 보석으로 연결시켜 갖가지 고난들을 당하며 수 없이 읊이 흘렸던 눈물을 ‘하늘 보석’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통박사 조병호는 성경을 본다.

연구자도 성경에 등장하는 ‘전도’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통으로 성경전체를 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에는 무엇으로 수렴되는지 연구해보겠다.

### 1. 전도의 개념

한국교회 전도는 이벤트 중심, 성장주의, 단기 실적주의에 의해 변형되어 왔다. 이러한 전도 이해는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과 분리되어, 전도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는 통전적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조병호의 통시각은 성경을 전체-역사-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세 틀로 읽게 함으로써, 전도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확장 과정으로 재정의한다.<sup>55</sup> 그는 전도를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계시 진행과정으로 본다.<sup>56</sup>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을 선택의 특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소명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시대마다 전도의 형태가 달리 전개되었다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21:4).

<sup>55</sup>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17-18.

<sup>56</sup> 보쉬, 『변혁하는 선교』, 53.

것이다. 예를 들어 족장시대에는 가정 중심적인 전도, 출애굽-왕국시대에는 제사장 나라의 공적 전도, 포로-귀환 시대에는 ‘디아스포라’ 중심의 전도, 신약시대에는 성령과 증인 공동체로 전도가 행하여 졌는데 이는 항상 전도가 행해졌고 시대에 따라 방식만 달라졌음을 증명한다.<sup>57</sup> 또 전도라는 것이 회심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 제자화를 통한 증언자 즉 전도자 생산에 맞추어져 있음도 알 수 있다. 통시각적 전도 이해는 전도를 말씀-역사-관계-언약의 증언 구조로 보며, 이는 “증인이 되라” (행1:8)는 명령과 일치한다. 전도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증언의 삶이다.

전도(傳導)는 한자어로 전할 전(傳)과 길 도(道)의 합성어이다. 직역하면 ‘길을 전하다’이다. 세상 각 분야에 그들 나름대로 도가 있다. 불교도 도가 있고, 장사에도 도가 있고, 성악에도 도가 있고, 심지어 야구에도 도가 있다.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한방으로 야구를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했던 이승엽을 야구 전도사(傳道師)라고까지 했다.<sup>59</sup>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길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Drew Seminary 김영래 교수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제사장이 야훼가 좌정하고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sup>57</sup> 이문장, 『통성경 포물라 적용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Drew 신학대학원, 2016), 32-34.

<sup>59</sup> 하도균, 『전도 바이블』 (서울: 도서출판 소망, 2023), 16.

그 문들의 이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다”<sup>60</sup>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이 번제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 했듯이, 인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전도란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거나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에스더, 다윗, 히스기야 등등과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과 같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나 시므온 장로, 안나 선지자, 다비다와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가 작은 예수로 살며 많은 사람에게 참 구원의 길을 전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전도자를 제자훈련이나 여타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도자로 재생산해 냈다.

‘전도자 재생산’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전도자가 피전도자를 가정과 교회에서 다시 전도자로 재생산해서 세상에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당대로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예수 재림 시까지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재생산과 계속성을 담보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

<sup>60</sup> 김영래 교수 2024년 7월 18일 강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예수 전도협회 대표를 맡았던 이유빈 권사는 이것을 근거로 전도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회성이 아닌 재생산을 통해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시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61</sup>

우선 지상명령이라 일컫는 이 말씀에는 다섯 개의 동사가 등장한다.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동사는 헬라어 원어에 모두가 하나같이 현재분사로 표기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그것은 곧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지키게 하도록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것은 전도가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일회성 행사나 행위를 전도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다. 이를테면 어떤 전도자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굴복시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다면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칠 뿐만아니라 그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도와주며 지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그를 천국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전도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를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한 영혼을 위하여 나가도록 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한 그가 맺은 열매를 주의 일꾼(전도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다.

이유빈은 지상명령에 나타난 다섯 개의 동사가 현재분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도를 단회적 회심이나 일회성 행사로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한다. 그의 의도는 전도를 ‘가라-제자 삼으라-세례를 주라-가르치라-지키게 하라’ 는

<sup>61</sup> 이유빈, 『전도는 쉽다』 (서울: 예복, 2000), 39-40.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제자화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즉 전도는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나아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지속적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도의 시작과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전도는 복음을 한 개인에게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전도자는 피전도자를 또 다른 전도자로 양성하여 그로 또 다른 전도대상자를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님 재림 시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전도가 지속 가능케 만드는 것이 전도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도 그의 『현대전도학』에서 전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sup>62</sup>

첫째, 복음 전도는 선교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선교에 복음 전도가 포함된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는 복음 전도보다는 훨씬 영역이 큰 것으로 복음 전도는 교회의 전체 선교의 한 국면이기 때문이다. 둘째, 복음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셋째, 복음전도는 성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 넷째, 복음 전도는 그 효과를 완전히 성령님께 의지한다. 다섯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여섯째, 복음 전도는 결단을 촉구한다. 일곱째, **참된 복음전도는 선포나 결단에서 끝내지 않고, 제자 삼음에서 끝난다.**

마이클 그린은 참된 복음 전도를 단순한 복음 선포나 즉각적인 결단의 촉구로

---

<sup>62</sup> 하도균, 『전도 바이블』, 37.

제한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제자 삼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의 관점에서 전도는 회심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열매가 지속적인 신앙 형성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전도의 성패는 단회적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세워지는 데서 평가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마이클 그린의 일곱째에서 참된 복음 전도를 정의하면서 전도의 완성을 단순히 복음 선포나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속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 삼음’ 까지로 보는 시각이 대단히 설득력과 통찰력 있는 전도의 정의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클 그린의 전도 이해는 전도를 단회적 결단에 제한하지 않고 제자화 과정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전적 전도 정의와 학문적 접점을 형성한다.

먼저 논문은 조병호 박사처럼 성경 66권을 일일이 ‘전도’란 키워드를 가지고 통통성경하면서 전도의 방식과 대상들을 연구해 보고 구약의 전도, 신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의 공통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것에 근거한 재생산 전도자 양성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 2. 구약의 전도

구약의 전도는 근대적 의미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결신 초청’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언약, 말씀 교육, 역사 사건, 예언적 선포, 거룩한 삶,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정체성과 구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선교적 증언으로 전도 기능이 나타난다. 따라서 구약의 전도는 선포(kerygma)와 삶(praxis), 공동체(community), 그리고 열방 지향성(universality)이 통합된 통전적 전도 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조병호의 통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등장하는 전도 양상들을 다음과 같이 통찰했다.

구분	성경	전도 방식	대상
모세오경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증언 전도,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으로 이어지는 가정 제자화 재생산 전도	모든 족속
	출애굽기	구원 사건의 공적 선포 해방 증언	이스라엘 · 열방
	레위기	제사장 나라를 세워 열방 전도, 선민의 거룩한 삶의 전도	열방
	민수기	순종 · 불순종의 교훈적 전도	차세대
	신명기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통한 전수 전도	차세대
역사서	여호수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제자화 재생산 및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	가나안
	사사기	하나님을 떠남-징벌-회개-구원 사이클의 교훈적 전도	이스라엘
	룻기	나오미의 선을 넘는 전도와 며느리에게 모범된 삶의 전도	모압
	사무엘상 · 하	왕권과 하나님 주권과 역사 증언	이스라엘
	열왕기	선지자 선포 전도	북 · 남왕국
	역대기	성전 중심 신앙 회복 전도	귀환 공동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회복을 통한 정체성 재건 전도	포로 귀환자
	에스더	에스더 기도 전도	디아스포라
시가서	욥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삶의 전도	열방 · 독자
	시편	하나님 찬양 전도	모든 민족
	잠언	지혜로운 삶의 전도	일상 세계

	전도서	허무의 간증 전도	인간 전반
	아가	사랑 관계로 맺어진 관계 전도	공동체
대전지서	이사야	메시아 예언을 통한 세계열방 선교	세계 열방
	예레미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선포 전도	유다
	에스겔	성령과 말씀 선포 전도	포로민
	다니엘	열방 가운데 기도와 능력 전도	제국
소선지서	호세아-말라기	회개 · 정의 · 자비 · 소망 선포 전도	이스라엘 · 열방

표 3-1. 구약의 전도 방식들

위의 표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전도 방식이 단일하거나 획일적인 형태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문학 장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모세오경에서는 언약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정 중심의 말씀 전수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전도를 단순한 언어적 선포가 아니라 삶과 관계 속에서 재생산되는 신앙 전수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특히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족장 중심의 가정 제자화와 신명기의 가정 교육은 차세대를 향한 전도의 핵심 구조를 형성한다.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심판, 그리고 지도자 계승 과정이 전도의 매개로 작용한다. 여호수아서의 정복 사건, 사사기의 반복적 타락과 회복의 사이클, 그리고 왕정 시대의 역사 증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사건 중심 전도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에스라-느헤미야와 역대기에서는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정체성 회복이 전도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시가서는 삶의 다양한 국면 ‘고난, 찬양, 지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실존적·간증적 전도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전도가 반드시 외부인을 향한 직접적 설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언서에서는 회개 촉구와 심판 선포, 그리고 장차 임할 구원의 약속이 전도의 중심 내용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사야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열방 지향성은 구약 전도가 이스라엘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처음부터 세계 열방을 향한 보편적 지평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할 때, 구약의 전도는 언약 공동체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의지를 증언함으로써, 열방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초대하는 총체적 전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약의 전도 이해는 전도를 단회적 결단으로 축소하는 접근을 넘어, 신앙의 형성·전수·재생산을 포함하는 장기적 제자화 과정으로 재정의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신약과 초대교회의 전도 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구약시대 주요 전도 양상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 a. 구약의 제사장 나라 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세워 다른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고자 의도하셨다. 언약적으로 선언하고 그들을 부른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출19:5-6)

제사장의 책무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제사장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역할을 염두에 두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의 뜻을 세상에 가르치고 전달해 주어야 했다.<sup>64</sup>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온 세상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 이로다” 시22:27-28) 구원을 위한 중보자적 전도자로 훈련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sup>65</sup>

#### b. 구약의 말씀 전도

전도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시119:105;50)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길이 된다는

<sup>64</sup> 알란 코페지, 『우리는 제자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김병제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3), 33.

<sup>65</sup> Ibid., 34.

것이다. 사도 바울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전도의 핵심이 말씀임을 이렇게 깨우쳐 주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19세기 영국이 나온 최고의 복음 전도자 찰스 스펠전 목사에게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성공한 데에는 이런저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화육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과 충만한 구원의 자유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의 세력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며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sup>66</sup>

요약하자면 그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 사람들의 영·혼·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70년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진리 한마디가 온 세상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sup>67</sup>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보다 무게 더 나가는 진리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도구이다. 통(通)성경하여 전도를 연구해 보았을 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전도자에게 들려졌을 때 가장 강하게 그리고

<sup>66</sup> 민경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영성』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26-27.

<sup>67</sup>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49.

오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의 근거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고, 전도에 앞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돼야 한다.

잃어버린 자들을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공생애 즉 본격적인 전도의 삶을 사시기 전에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자 예수님이 이 도전을 그간 암송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하며 승리하셨다. 전도자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도전할 것이다. 이때 혈과 육으로는 절대 마귀를 못 이긴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물리치며 피전도자에게 쳐놓은 사단의 견고한 진도 영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휘파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기록하고 전한 자는 모세이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 “유대인 모세를 종종 ‘모세 라베누’, 곧 ‘우리의 랍비 모세’로 불렀다. 유대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그들에게 토라를 전달해 준 모세를 존경했다.”<sup>68</sup>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한 일은 광야 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Family School)’을 개설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전도자로 세우는 기초를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광야에서 로스쿨을 개설하여 40년간 강의하며 여호와 신앙과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39년 11월에 죽음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sup>68</sup> 로이스 티어베르고·앤 스펙글러,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 손현선역 (서울: (사)사랑플러스, 2019), 43.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놓고 이런 명령을 내린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에든지 길을 갈 때 에든지 누워 있을 때 에든지 일어날 때 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

이 모세의 말은 출애굽 2세대들의 광야 학교 졸업식사였다. 그 당시 가정이 23,000개 정도였다고 한다. 모세는 부모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반드시 가정 학교를 개설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라 명령한다. 가정 학교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1) 교제는 모세5경 (2) 교육 내용은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 교육을 이야기식으로 암송 (3) 교사는 각 가정의 부모 (4) 학생 나이는 만5세부터 (6) 교육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을 때, 잠자리에 들 때까지였다.<sup>69</sup>

모세가 제도화시킨 가정 학교 덕분에 이스라엘은 열방에 흩어져 ‘홀로코스트’와 같은 심한 박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도록 전도가 지속 가능케 만들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 즉 전도였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앗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죽은 지가 오래되어 전혀 살 가능성이 없던 마른 뼈들에게 전도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된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골격을 갖추며 일어섰다. 그리고 살이 붙었고 힘줄이 생겼다. 이 뿐만 아니라 생기가 돌아와 강한 군인들로 거듭났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sup>69</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20), 37-39.

바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로인 인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뿐이라는 것이다.

### c. 구약의 기도 전도

에드 실보소 목사는 기도 전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sup>70</sup> 다니엘은 90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다를 위해, 바벨론을 위해, 새로 바뀐 메다-바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했다. 그 결과 느브갓네살 왕을 전도했고, 메다-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을 기도로 전도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기도 전도를 잘 보여 주는 성구가 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6:10) 이 구절을 통하여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의 나이 80이 가까울 때까지 하루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한 달 동안의 기도 금지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자 굴에 던져졌다. 그런데 여기서 대 반전이 일어난다.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들을 급파해서 구해주신다.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전도되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메다-바사 제국에 조서를 내려 사자굴에서도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 요약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sup>70</sup> 에드 실보소, 『기도전도』 김한성 역 (서울: 토기장이, 2001), 36.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다리오 왕을 전도했고, 다리오는 메다-바사 제국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이다.

d. 구약의 성육신 전도(Incarnational Evangelism)

고신대 교수 임영호는 성육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의미한다.”<sup>71</sup> 그리고 조셉 알드리치는 그의 저서 *Life-Style Evangelism*에서 성육신 전도법에 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진리를 언어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활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전달 방법은 성육신이었다”<sup>72</sup> 요약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삶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성육신 전도가 무엇인가를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일러 주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12)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전도의

<sup>71</sup> 임영호,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고신신학』 6 (2004), 143, <https://www.kirs.kr> [2025.07.29. 최종 접속].

<sup>72</sup> Ibid.

모범이다. 따라서 성육신 전도란 주님을 안에 모신 전도자 자신이, 피전도자의 삶에 자리로 찾아 들어가 삶으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전도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델이라 불리는 요셉이 등장한다. 그가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할 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보디발 장군에게 나타내 보여 주었다(창39:3). 보디발 장군 아내의 참소에 의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여 주었다(창39:23). 이 뿐 아니라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연거푸 꾸고 난 뒤에 요셉을 불러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바로 왕은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창41:38). 요약하자면 요셉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는 성육신 전도자였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도 마찬가지였다.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 이삭을 내쫓기 위하여 우물을 막아 버린다. 이에 이삭은 아버지가 물려준 가병(家兵)들과 엄청난 경제력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이 뜻이 숨어 있음을 믿고 그랄, 에섹, 싯나, 르보봇, 브엘세바로 이동하며 계속 따라와서 우물을 막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았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온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이런 고백을 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창26:28) 이삭도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잘 표현한 말이 있다.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가 바로 시금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룯기를 보면 이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시어머니가 모압 생활을 접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청상과부가 된 룯에게 친절로 가서 개가하라 한다. 하지만 룯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룯1:16-17)라며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알거지이고 소망이 전혀 없었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 왜 그러했겠는가?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룯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다. 이것이 삶의 전도요, 성육신 전도이다.

헬렌 켈러는 ‘성경에 밀줄 굿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밀줄 굿게 하라’ 고 말했고, 한국의 기독교 시인 기형도는 자신의 시 『우리 동네 목사』란 시에서 ‘목사님 성경에 밀줄 굿지 말고 삶에 밀줄 그으라’ 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모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 주며 전하는 성육신 전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sup>73</sup> 지금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 주는 성육신 전도가 가장 절실한 시대다.

<sup>73</sup> 강준민, “밀줄을 그어 가며 책을 읽는 지혜,” 『기독일보』, 2023.07.17,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18729/20230717/> [2027.01.17. 최종 접속].

#### e. 구약의 능력 전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브갓네살 왕이 전혀 힌트도 주지 않았던 신상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한다. 이에 느브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단2:47)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 요약하자면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느브갓네살 왕을 전도하였다는 것이다.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누가 참신인가? 하는 내기를 한다. 그 결과는 엘리야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사 번제물과 번제단의 물까지도 썩 태워버리신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했다. 엘리사도 죽은 수넬 여인의 아들을 눈과 눈을, 팔과 팔을, 다리와 다리를 포개며 기도하여 살려냈다. 그제서야 수넬 여인이 확실히 하나님께 전도되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석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속에서 살아나온 일이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름병과 가루통이 기근 동안 끊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이나, 엘리사가 죽은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 등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능력 전도였다.

#### f. 구약의 선을 넘는 전도

선을 넘는 전도란 집단과 집단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 언어, 종교, 문화, 인종 등등과 같은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열에 들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교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는 말이다.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선을 넘어선 전도는 요나의 니스웨 전도였다. 니스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고 당연히 언어와 신앙과 지역과 문화가 달랐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 행 배를 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나서 니스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이삭도 블레셋으로, 야곱도 애굽으로, 요셉도 애굽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나오미는 모압으로 선을 넘어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전도자는 선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 g. 구약의 제자화 재생산 전도

구약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제자의 의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림무드(לִמּוּד), *limmûd*” 가 두 번 등장한다(사50:4;54:13).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연속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제자화 재생산 방식이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인 전도자의 중요성을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역설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3~17)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해야 하는데 전도자가 없으면 결단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도자의 재생산이 중단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멈춰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들이 선지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며 제자훈련을 하게 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와 엘리사다. 엘리야는 선지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 전수자들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 엘리사도 선지학교 교장을 맡아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갔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도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선발하여 훈련시켰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교육했고 가정에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제자삼아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전수한 토라를 암송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쉘마 가정 자녀 제자화 교육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 3. 예수님의 전도

이제 예수님의 주요 전도 방식들을 알아 보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막 1:38)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 다양한 예수님의 전도 양상들을 알아보자.

구분	성경	전도 방식	대상
복음서	마태	제자화 재생산 전도, 이방으로 선을 넘는 전도, 소그룹 동행 전도, 기도 전도, 능력 전도,	유대인
	마가	십자가 중심 말씀 선포 전도, 기도 전도	로마인
	누가	섬김 전도, 기도 전도, 능력 전도, 가르침 전도	이방인, 여성
	요한	성육신 전도, 관계 전도, 능력 전도, 간증 전도	세계만민

표 3-2. 예수님의 전도 방식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자화·재생산 중심 전도를 핵으로 삼고 소그룹 동행·기도·능력 사역을 통해 공동체 안팎으로 확장하며, 필요할 때 이방으로 경계를 넘는 전도를 병행한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해 십자가 중심의

말씀 선포(케리그마)를 전면에 두고, 기도를 바탕으로 한 단순·직진형 복음 제시로 결단을 촉구한다.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여성 등 주변화된 이들을 포괄하며, 섬김(디아코니아)·가르침·기도·능력 전도를 결합해 ‘복음이 삶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강조한다. 요한복음은 세계만민을 향해 성육신적 접근을 전제하고, 관계 속 대화·표적(능력)·간증을 통해 ‘믿음의 초청’을 심층적으로 형성한다.

요약하면 마태는 제자화 재생산, 마가는 십자가 선포, 누가는 섬김과 교육, 요한은 관계와 증언이라는 강조점이 ‘대상 맞춤형 전도 전략’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위의 표를 보면, 예수님의 중요 전도 방식이 8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구약의 전도 양상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a. 예수님의 말씀 전도

예수님께서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베들레헬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구약에서 선지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전도하실 때도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다.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전도와 제자훈련’ 특임 교수였던 로버트 콜먼은 『주님의 전도계획』이란 책에서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용하신 교과서다”<sup>75</sup>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사용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sup>75</sup> 로버트 콜먼,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85.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은 성경의 사용과 그 중요성이었다. 이것은 주님이 개인적 헌신을 지속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자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구절의 뜻을 이해시키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과 대화할 때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90번이 넘게 구약성경을 암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4복음서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적어도 66번 구약을 언급하셨다.<sup>76</sup>

그리고 중복된 것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지도 밝혔다.

같은 사건을 나란히 기술하여 중복된 경우를 계산에 넣으면 예수께서 당시의 성경을 암시한 경우가 4복음서에 모두 160회 가량 나온다. 더욱이 이 언급 속에는 구약성경의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옛 족장들과 왕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결론이다. 그의 전체적 사고는 당시의 영감된 문서들에 감긴 정신이 그 틀을 이루었다.<sup>77</sup>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전도는 대부분 영감된 성경 말씀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에 힘쓰면서 말씀에 충실하셨던 것이다. 여호와와의 종의 노래라 불리우는 이사야서 50장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sup>78</sup>게 주사 나로

<sup>76</sup> Ibid., 84-85.

<sup>77</sup> Ibid., 85.

<sup>78</sup> 메시아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사50:4)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신 주된 목적 중 하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자의 혀’를 NIV 성경에 보면 난외 주에다 제자,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해설해 놓았다. ‘제자의 혀’가 본래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살리는 번역이다. 옛날에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가르침, 말과 언행을 그대로 담아내는 도제 형식을 띠었다. 그래서 ‘제자의 혀’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담아서 스승의 뜻과 생각을 담고 배워서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과 행실을 친히 다 담아내신 분이시다.<sup>79</sup>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자로 살면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이다.

#### b. 예수님의 기도 전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기도와 전도다.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마가복음에서 밝혔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1:38)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를 위한 공생애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기도였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다. 마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sup>79</sup> 박지웅, 『엘리야는 길을 안다』 (서울: 더드림, 2015), 199-200.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1:35). 전도를 함께 할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밤새워 산에서 기도한 것을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눅6:12) 또 사역 중간의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많은 군중들과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요11:41-44) 또 하루의 전도사역을 마치시고도 기도하셨다.

5병2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떡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요14:21-23) 마지막 전도사역을 다 이루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23:46)라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다.

### c. 예수님의 성육신 섬김 전도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한 가지 목표는 전도였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라 전도자로서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자리에 침투하셨다.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희노애락 경험하며 살며 그들을 섬기면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11절에서 빌립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당신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며 하신 전도였다는 것이다.

고신대 임영효 교수는 예수님의 성육신 전도의 특징이 말보다 삶이 앞서서 전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누가가 전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행1:1)는 구절을 들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 전도는 말로만 하는 ‘오디오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비디오 전도’라는 것이다.<sup>80</sup>

또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나환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제사 삼는 사역을 하셨다. 그러나 집으로 가서 쉬시는 것이 아니셨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치는 순간에도 주무셨다. 코를 골았다는 말씀은 없지만 너무나도 피곤해서 킁아떨어지신 것이 분명하다. 제자들이 깨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그리고

<sup>80</sup>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143-145.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이었다. 거기서 귀신이 들려 무덤가에 사는 두 광인을 전도하셨다. 이것이 본질이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잘 나타내 보이신 예이다. 또 한 예를 더 들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았던 무리를 용서하자 그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눅23:42)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본질이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나타내 보여주며 오른편 강도를 전도하셨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언행으로 나타내 보여 주는 성육신 전도자였다.

#### d. 예수님의 관계 전도

조지 헨턴 3세는 “신앙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분이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다” 고 했다.<sup>81</sup> 이렇게 서로 친분관계를 맺으며 하는 전도가 바로 관계 전도다. 이런 관계 전도가 무엇인가를 리얼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

아칸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젊은 부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물었다. “별일 없으시죠?” “아뇨, 이번 주에 누가 저희 차를 훔쳐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경찰에서는 차를 훔친 사람을 찾아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신고해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질서를 유지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단 신고 절차를 밟고 차를 훔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차를 훔친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sup>81</sup> 래리 길버트, 『팀전도 전략』 송계성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젯트, 1993), 서문.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마침내 도난 차량을 찾았고 15세 소년이 절도범으로 교소도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부부는 그 소년을 면회하러 갔다. 두 사람은 소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흥분했고, 자신들이 소년을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해 왔노라고 얘기해주었다. 아마 그 소년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소년과 이야기하면서 부부는 소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병문안을 갔다. 소년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잃었고,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소년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도 함께 돕겠다고 나섰다. 소년의 어머니에게 스스로를 돌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알게 된 부부는 돈을 모아 그녀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도난당한 젊은 부부가 자신에게 부어준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한 소년의 어머니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또 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여 아들도 회심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전남편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족을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역시 교소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경통신과정을 수강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감동도 받았다. 그는 혹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sup>82</sup>

이 사례는 조지 헨터 3세의 주장처럼 신앙이 낯선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친분의 관계 속에서 확산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관계 전도는 복음의 선포 이전에 삶을 통한 신뢰 형성과 사랑의 실천을 전제로 하며, 용서와 섬김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선행은 공동체의 참여로 확장되고, 관계망 전체가 복음의 통로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전도는 회심을 개인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한다.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도 관계를 통하여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우물가의

<sup>82</sup> W.오스카 톰슨 주니어, 클로드 V. 킹, 『관계중심 전도』 이혜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4), 12-13.

여인과 관계를 맺으시고 수가성 사람들이 ‘와 보라’ 는 그녀의 전도를 받아 성 전체가 예수님을 직접 믿고 구원받게 된다. 또 베드로와 맺었던 관계를 통하여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으시며 전도하신다. 가나 혼인 잔치의 전도도 이미 형성되었던 관계를 통한 전도였다. 예수님이 혼인 잔치집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셨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곳 사람들을 전도하셨다.

#### e. 예수님의 능력 전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아예 공생애 시작부터 밝히셨다. 나사렛 회당에서 다음과 같이 취임 설교를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4:18-19)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다. 나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열병 걸린 자 등도 고치셨다. 이뿐만 아니라 간질하게 만들고 병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 군대귀신, 일곱귀신 등도 쫓아냈다. 물위도 걸으셨다. 7병2어, 5병2어의 급식이적도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이다. 전도자는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흘러나갈 때 전도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한다.

#### f. 예수님의 선을 넘는 전도

예수님은 아기 때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후, 처음으로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해 두로와 시돈이란 이방 나라를 방문하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수로보니게 여인(막7:26)이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전도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 오게 된 헬라인 몇몇을 빌립의 소개로 전도한 모습이 요한복음 7장 35절 이하에 등장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의 선들을 넘는 전도를 하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의 확장적 의미인 선교를 하셨다는 말이다.

#### g. 예수님의 제자화 재생산 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전도였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당신이 랍비가 되어 제자삼아 그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제자화 재생산 전도였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정식 명칭으로 랍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12 번(마 26:25, 마 26:49, 막 9:5, 막 11:21, 막 14:45, 요 1:38, 요 1:49, 요 3:2, 요

4:31, 요 6:25, 요 9:2, 요 11:8) 등장한다. 이것은 정식으로 예수님이 도제 성격을 띠고 있는 랍비가 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티어베르그는 유대인들이 랍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 랍비 예수님의 30 세까지의 생애를 유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처럼 사셨고, 유대인처럼 말씀하셨고, 유대인처럼 예배드리셨다.<sup>83</sup> 그리고 유대인 랍비로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대여섯 살 무렵부터 토라와 히브리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읽고 암송하는 법을 배우셨을 것이다. 이는 유대 소년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열 살이 넘으면 구전 토라를 배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열세 살이 되면 대다수 소년은 정규 교육을 마친 후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중 재능이 출중한 소년은 회당에 있는 베틀 미드라쉬에서 보통 결혼 적령기인 18~20세까지 십 대 내내 학업을 이어갈 것을 권유받는다. 가장 총기 있는 자만이 위대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sup>84</sup>

김영래 교수도 랍비 예수에 관하여 같이 주장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남자 어린이들은 5세에서 6세 사이 Beit Sefer(House of Book)라 불리는 학교에서 토라공부를 시작했다. 교육방법은 기록된 토라(Mikra, Written Torah)를 암기하는 것으로 10세까지 모세오경인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 [...] 10세가 되면 구전토라(Mishnah, Oral Torah)를 Beit Talmud(House of Learning)에서 배웠다. 여기에서는 모세오경 이외의 구약 성경(히브리 성경) 전체를 역시 암기의 방법으로 공부했다. 14세까지 이 학교에서는 질문과 대답 형식의 유대적 학습 방법으로 탈무드(Talmud, 구전과 기록된 토라, 후대 집성된 탈무드와 다른 의미)를 공부했다. 그리고 랍비가 성경의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그 문장의 앞과 뒤의 문장을 말하는 remez(히브리어의 힌트)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했다 [...] Beit Talmud에서 공부를 마친 후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대로 매일저녁 마을공동체 식사에 참여하여 Haver im(친구)과 함께 토라를

<sup>83</sup> 로이스 티어베르그, 『랍비 예수』 손현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8), 14.

<sup>84</sup> 티어베르그 · 스펡글러,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 33.

연구하고 토론했다. [...] 이 과정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업에 전념하게 된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만이 Beit Midrash(House of Study 또는 House of Interpretation)로 진학하게 된다. 이곳은 랍비의 문하생이 되어 선생의 성경해석(yoke, 멩에)을 전수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18~20세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성경을 주체적으로 해설할 권위(s' mikhah)를 인정받고, 제자(talmidim)를 삼을 수 있는 랍비가 된다. 이때 랍비는 성경해석의 권위 전수를 약속하면서 'Lech Acharai, 나를 따라오라' 는 말로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선생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제자들은 '랍비 신발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스승을 따랐다.<sup>85</sup>

김영래 교수는 예수님을 당시 유대 교육 체계 속에서 형성된 랍비로 이해하며, 제자도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과 해석 전승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유대 사회에서 성경 교육은 암기, 토론, 질문 중심 학습을 통해 진행되었고, 최종 단계에서는 소수의 제자만이 랍비의 해석 권위를 전수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는 부름은 단순한 종교적 초청이 아니라, 스승의 성경 해석과 삶 전체를 전수받는 제자 공동체로의 소명 선언이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삼음이 장기적 훈련과 삶의 동행을 전제로 한 제자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만 삼십에 합법적으로 말씀 해석권과 제자선발권을 가진 랍비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30이 되기까지 랍비 과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선발하여 12제자, 70제자, 500여 제자 등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전도자들을 재생산하는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한 지상(至上)명령도 제자화 재생산

<sup>85</sup>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94 (2018), 457-459.

전도였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 훈련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신한 성도를 제자삼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제자화 재생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버렸다.<sup>86</sup> 그리고 제자들이 취했던 전도방식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제자화 재생산 전도였다. 전도해서 제자삼고 이들을 전도자로 양육하여 또 다른 사람을 제자삼고 전도자로 재생산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 h. 예수님의 천상 전도

민경설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사역을 ‘지상사역’이라 부르고, 승천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는 사역을 ‘천상사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sup>87</sup>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와 동역하신다는 것이다.<sup>88</sup> 이를 마가복음 16장 19-20절에서 다음과

<sup>86</sup> 콜먼, 『주님의 전도 계획』, 177.

<sup>87</sup>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기도로 사역하고 계심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8:34)

<sup>88</sup> 민경설,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 (서울: 미래목회연구원, 2024), 40.

같이 증거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주님의 ‘천상사역’의 진수인 중보기도와 현장 전도 참여를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주님은 지금도 전도자들과 동역하며 이 땅에서 전도하고 계신다.

#### 4. 초대교회 전도(증언-복음-성령-제자화-땅끝)

김영래 교수는 “기독교 내일의 희망은 초대교회에 있다”<sup>89</sup>는 역설적인 주장을 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2007년에 ‘교회의 미래를 위한 고대 신앙(The Ancient Faith for the Church’s Future)’란 주제로 열린 휘튼 신학회의(Wheaton Theology Conference)의 선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휘튼 신학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가 가진 풍부한 성경적, 영적, 신학적 보고(寶庫)들이 재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90</sup>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회귀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21세기 교회의 모습을 단순했던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새롭게 지금에 적용하자는 뜻이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고,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시기가 초대교회 때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sup>91</sup>

<sup>89</sup>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2) 과거에서 찾는 교회의 미래”, 『국민일보』, 2012.09.1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25910> [2026.01.17. 최종 접속].

<sup>90</sup> Ibid.

<sup>91</sup> 하도균, 『전도 바이블』, 342.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발흥』에서 교회가 AD 40년부터 AD 350년까지 10년당 4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주장한다.<sup>92</sup>

연도	기독교인 수	인구 비율 %
40	1,000	0.0017
50	1,400	0.0023
100	7,530	0.0126
150	40,496	0.07
200	217,795	0.36
250	1,171,356	1.9
300	6,299,832	10.5
350	33,882,008	56.5

표 3-3. 10년당 40%로 투사한 기독교 인구 성장

위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이 18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가 창시한 몰몬교에서도 있었다. “몰몬교는 지난 100년 동안 10년당 43%라는 평균 성장률을 보였다.”<sup>93</sup> 그리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시작된 전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마케도니아 아테네와 로마를 거쳐 땅끝으로 급속히 빠르게 달려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sup>92</sup>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22), 32.

<sup>93</sup> Ibid., 23-2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성경공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능력전도)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교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전도가 급격히 이루어짐, 전도의 주체는 주님) 하시니라(행 4:2;2:36-47)

로드니 스타크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했고, J.C 러셀은 1만 명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sup>94</sup>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1 절과 4장 2 절에서 하루에 삼천 명, 오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복음화율이 25%~50%까지 되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기에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했는가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구분	성경	전도 방식	대상
역사서	사도행전	성령 전도, <b>능력 전도</b> , 기도 전도, 찬양 전도	예루살렘→땅끝

<sup>94</sup> Ibid., 20-21.

바울서신	롬-몬	제자화 전도, 말씀 전도, 간증 전도, 능력 전도, 선을 넘는 이방 전도, 자녀 제자화 전도(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이방인
일반서신	히-유다	삶의 전도, 성육신 전도, 기도 전도	흩어진 교회
예언서	계시록	예언 선포 전도, 간증(증언) 전도	만국

표 3-4.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들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기도·찬양·능력(표적) 중심 전도가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며, 복음의 지평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바울서신(롬-몬)은 이방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말씀 선포와 제자화를 축으로, 간증·능력 사역·경계(선을) 넘는 전도가 교회 개척과 성숙을 견인하는 구조로 제시된다.

특히 디모데 사례는 가정·세대 전승 맥락에서 ‘자녀 제자화’ (로이스-유니게-디모데)가 신앙 재생산의 핵심 경로임을 시사한다. 일반서신(히-유다)은 박해와 흩어짐 상황의 교회를 대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증언(삶의 전도)과 성육신적 동행, 기도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거룩을 유지·강화하는 전도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은 만국을 향한 종말론적 지평에서 예언 선포와 증언(간증) 전도를 통해 복음의 보편성과 최종 승리를 선언하며, 환난 속 교회의 선교적 견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위의 표에 나타난 것들을 근거로 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살펴보면 대략 7가지 정도가 된다.

### a. 초대교회의 기도 전도

전도자의 전도 동력은 주님과 연결에 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과 같이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전도에 쓰임 받아 열매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찍이 윌리엄스라는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였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므로 선행되어야 한다.”<sup>95</sup> 그리고 로버트슨(Robertson)이란 설교자도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시다.”<sup>96</sup> 요약하자면 전도의 동력이 기도에서 옴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처를 먼저 찾았다. 그 결과 자주색 옷 장사 루디아가 전도되었다. 그리고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려 점치는 여종을 전도했다. 이에 주인들이 소득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관에 고발하여 감옥에 넣는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다. 그 결과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했고, 빌립보 간수의 집에 초대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사도행전 3 장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아홉 시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 앓은뱅이가 구걸하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행 3:6)

<sup>95</sup> 도원욱, 『전도를 말하다』 (서울: 제이콥스 리더, 2021), 20.

<sup>96</sup> Ibid.

기도해주었을 때 앓은뱅이가 전도되었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이 전도되었다. 또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받고 3천명을 전도하기 전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었다. 요약하자면 전도의 동력이 기도였다는 것이다.

#### b. 초대교회의 말씀 전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배경이 무엇일까? 이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사명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전 1445년 모세가 시내 산에서 토라를 받고 난 뒤에 부모들은 이 말씀을 암송했다. 그리고 자녀의 귀에 외워서 암송시켰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빠 엄마의 성경 암송을 들었을 것이다. 성경 암송이 생활화된 것이다. 예수 시대 일반적인 유대인의 삶이 미쉬나 아봇 5:21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섯 살에는 미쉬나(구전 토라, 즉 성문 토라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를 공부하고, 열 살에는 미쉬나(구전토라, 즉 성문 토라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를 공부하고, 13 살에는 계명에 복종하며(바르 미쯔바, 종교적인 성인식), 열다섯 살에는 탈무드(할라콧, 랍비들의 법적 판결)를 공부하고, 열 여덟 살에 결혼하고, 스무 살에 생계를 위하여 일한다.<sup>97</sup>

<sup>97</sup> 비빈,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41.

다시 말하면 5-10 살까지는 베트 세페르에 의무적으로 입학하여 토라(창, 출, 레, 민, 신 5843 구절)를 암송하고, 10-13 살에 베트 탈무드 학교에 들어가서 예언서, 시가서 암기와 하부르타를 하고 또 성경공부에 특출한 학생은 14-29 세 정도까지 ‘베트 미르라쉬’에 입학하여 랍비에게 개인 사사를 받는다. 적어서 13 세까지는 토라 5843 구절과 성문서 예언서 등등을 암기하여 영혼과 뼈마디 속에 새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98</sup>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말씀을 영혼 속 깊은 곳까지 심어주었는지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45년 랍비 엘리저 실버는 유럽 전역에서 집 잃은 유대인 아동 수천 명을 찾아 나서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그의 목표는 나치의 손아귀를 피해 농장, 수녀원, 수도원으로 숨어들어 간 아이들을 찾아내 가능하다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받아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랍비는 유력한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담당 수도사는 자신이 아는 한 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담했고, 어떤 서류나 기록도 없었다. 슈왈츠, 하우스프만, 슈나이더..., 성씨를 보면 독일인이 분명했지만, 그렇더라도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었다. 랍비는 작은 얼굴들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수도원에 살았던 아이들도 많았다. 대체 이 아이들 중에 누가 유대인 가정 출신일까? 랍비는 숙소 방문을 요청했다. 숙소에서 아이들 앞에 선 그는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해누, 아도나이 에하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라). 네댓 명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부모의 잠자리 기도와 부모들이 매일 아침저녁 암송하던 기도를 통해 들었던 그 유구한 노랫말이 아이들의 초기 기억 저편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다.<sup>99</sup>

<sup>98</sup> 김영래, “스토리와 기독교 교육,” 강의, 2024.07.16.

<sup>99</sup> 티어베르그, 『랍비 예수』, 40-41.

이 사례는 유대 가정에서 이루어진 말씀 교육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넘어 정체성 형성의 핵심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나치 박해 속에서 수도원에 숨어 자란 유대인 아동들은 자신의 출신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가르친 쉼마 기도를 통해 내면화된 신앙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랍비 엘리저 실버가 히브리어로 쉼마를 노래하자 일부 아이들이 즉각 반응한 것은,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깊은 층위에 각인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이야기는 신앙 전수가 제도나 환경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체화될 때 지속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말씀 교육은 단기적 학습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신앙 형성의 핵심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바울도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 암송소리와 쉼마 노래를 들었던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고로 전도할 때 말씀으로 전도를 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바울도 아시아와 아테나와 로마에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빌립보 감옥 간수장 전도이다.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안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이것이 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행 16:30)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며 운을 뗐 다음 바로 한 것이 주의 말씀(오늘날 성경)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온 가족이 전도되어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바울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스테반도 순교하기 직전까지 전했던 것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도 사마리아가로 가서 말씀으로

전도하였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를 성령에 이끌려 가사 땅까지 가서 전도할 때도 읽어 주며 전도한 것이 이사야서 53 장 7-12 절 말씀이었다.

### c. 초대교회의 능력 전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히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눅 24:39)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120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이들이 전도할 때 함께 하였다. 베드로의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는 능력 전도였다.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달라졌다. 받기 전에는 뜨겁지만 쉽게 식어버리는 전도자였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한 번 설교하면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앓은뱅이에게 손을 얹은 즉 걷기도 하며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행 3:6).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온갖 병이 떠나갔고 귀신도 도망갔다.<sup>100</sup> 로마 화재 사건 뒤에 베드로는 ‘퀴바디스 도미네’의 환상을 본 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전도였다. 스테반 집사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축사, 치유 등의 이적을 일으키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심지어는 성령으로 그 몸이

<sup>100</sup> 사도행전 5:14-16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순간 이동하여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자를 전도하려 가기도 한다.<sup>101</sup>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행 19:11-12) 그리고 자신의 전도가 성령 전도였음을 이렇게 고백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 d. 초대교회의 성육신 전도

마이클 그린은 AD 40년 경 1,000명 정도로 출발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에서 350년경에 5,600만 명, 로마 인구의 5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던 요인들을 5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진심이 담긴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였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성서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성결한 가정생활을 하였다; 넷째,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대우했다; 다섯째, 기독교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sup>102</sup>

<sup>101</sup> 사도행전 8장 5-29절.

<sup>102</sup>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25910> [2025. 05.02 최종 접속]

마이클 그린은 초대 기독교의 급속한 확산을 전도 기법의 성공이 아니라, 성육신적 삶의 증언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구별성, 이웃 사랑과 섬김, 성결한 가정생활, 차별 없는 공동체성,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복음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였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복음의 신뢰성을 높였고, 전도는 선포 이전에 삶으로 증언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이 되는 전도, 즉 배운 바 말씀을 생활 가운데 보여주는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성육신적인 전도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 로마에서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 인구의 약 1/4 이 희생된 시기가 있었다. 로마는 격리방역(quarantine)을 실시하여 병에 걸린 사람들을 외지에 격리시켜 놓고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찾아가 극진히 돌봐 주었다. 그리고 개인 면역이 생겨 사망률이 일반인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적었다.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을 받아 병에서 치료된 자들은 당연히 전도되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삶의 전도(Lifestyle Evangelism)라고 조셉 알드리치는 명명했다.<sup>103</sup>

고려신학대 교수 임영효 교수도 고신신학 2004년 가을에 투고한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기고문에서 화란의 자유대학교 선교학 교수였던 베르카일(J. Verkuyl)의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원인이 그들의 성육신 전도임을 밝히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

<sup>103</sup> 김영래, 2024년 7월 19일 강의

안에 들오게 되었다. 그 당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도 순결하고 고결한, 매력적인 삶의 모습을 목격하고서 그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이혼이 없는 아름다운 부부생활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받아,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이루게 되어졌고, 짧은 기간 동안 로마제국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sup>104</sup>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장신대 예배학 교수였던 주승중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다”<sup>105</sup> 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성전 예배에서 출발하여 예배 뒤의 예배(Liturgy after liturgy)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부인들에게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닌 경건한 생활로 보여주는, 다시 말해 성육신 전도를 할 것을 권면한다.<sup>106</sup> 철학자이자 교리문답 교사였으며 AD 165년에 순교했던 유스티누스는 AD 150년에 호교론을 써서 안토티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수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명령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지 인용만 할 뿐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들을 참된

<sup>104</sup>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145.

<sup>105</sup> “주승중 목사 초청/뉴질랜드 알파크루시스칼리지 세미나,” 『크리스천라이프』, 2023.03.26, <https://christianlife.nz/archives/23260> [2024.07.29. 최종 접속].

<sup>106</sup>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145.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 참여도 불허한다.”<sup>107</sup> 주후 256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도 교인들을 격려하는 논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 드러낸다. [...]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sup>108</sup>

#### e. 초대교회의 선을 넘는 전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2가지를 당부하셨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을 넘어 전도하라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두 번째는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제자들은 인도, 로마, 아프리카, 유럽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베뢰아 고린도

<sup>107</sup> 엘런 크라이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김광남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5), 40-41.

<sup>108</sup> Ibid., 37-38.

아테네를 거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당시 세계에서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계획했다.

#### f. 초대교회의 제자화 재생산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속시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제자를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파송하였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해 갔다. 로버트 콜만은 그의 저서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제시하였다. 백만숙에 의하면, 콜만은 예수님의 전도 원리 7가지를 ‘제자 선택, 동거, 헌신, 분여,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원리인 ‘재생산(Reproduction)’을 구원 받은 자가 세례 받고 전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sup>111</sup> 이 주장이 연구자의 가슴에 와닿았다. 왜냐하면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전도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전도자의 재생산, 바꿔 말하면 재생산 전도가 1990년대 이전만큼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들을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전도자를 재생산해 나갔다. 베드로는 마가를 제자삼고, 요한은 폴리갑을 제자 삼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제자 삼았다. 사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잇는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제자 삼기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재생산 전도를 해가고

<sup>111</sup> 백만숙, 『평신도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도역량강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2014), 26.

있다. 한국에서는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가 평신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예수 전도자들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복음의 증인들을 재생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지금까지 신·구약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에는 말씀, 기도, 성령, 능력, 성육신적 섬김, 제자 삼기, 재생산 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따로 국밥처럼 개별적으로 작동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해져 전도자가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또 다른 전도자들이 되어 전도의 재생산까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전도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원리가 비빔밥 속에 담겨 있다. 비빔밥은 각기 다른 맛을 가진 식재료들이 협력하여 각기 맛을 잃지 않으면서 전체 하나로 수렴되면서 최고의 맛을 낸다. 양푼 같은 그릇 속에서 밥, 김치, 고추장, 달걀, 나물, 소고기 참기름이 하나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영양 만점의 비빔밥이 된다. 이런 모습 속에 식재료 하나하나와 전도의 요소 하나하나가 께를 같이 하는 그림이 연상된다.



그림 3-1. 전도 비빔밥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 기도, 관계, 생령의 역사, 성육신, 섬김, 제자화, 재생산전도, 파송, 선을 넘는 전도 등등이 어우러져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는 광진교회의 전도 구조와 전도자 재생산 깔때기 시스템을 소개하며 광진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V. 성경적 전도로 성장해온 광진교회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광진교회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민경설 목사의 영혼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전도 철학과 성경에 기반한 전도자 재생산 전도동력 세미나와 함께 부흥 발전해온 교회다. 연구자는 이 교회를 8년째 섬기면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전도의 요소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적인 전도로 성장해오고 있는 전도중심 광진교회의 전도모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A. 광진교회 전도 동력(Evangelism Dynamic Power)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전도학교 교장을 역임한 민경설 목사는 “전도 동력은 성령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에게 주는 파워이며, 이 파워는 전도자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sup>122</sup>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기도와 말씀이 전도 동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전도자가 전도 동력을 받으면 자석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행 13:48)을 하나님의 교회로 끌어당길 수 있다”<sup>123</sup>고 말한다. 존 스토틀(John Stott)가 “전도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활동이다”<sup>124</sup>라고 말하며 전도의 주체를 하나님이시라고 밝혔다. 성경도 여러 곳에서 전도의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sup>122</sup> 백만숙, 『평신도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도역량강화 연구』, 10.

<sup>123</sup> 민경설,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능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23.

<sup>124</sup> 민경설,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의 역동성』 (서울: 한국장로회 출판사, 2007), 39.

밝혀 주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6:37).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4).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13:48).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살전1:4).<sup>125</sup>

마찬가지로 민경설 목사도 “전도 동력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sup>126</sup>라며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역설한다.<sup>127</sup>

다시 말해 전도자가 전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전도의 실상을 기도하면서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전도가 된다는 것이다. 또 전도동력을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죄를 멀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붙잡혀 살며, 하나님의 나라로 차원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갈 때 전도 동력은 유지되며 강화된다고 한다.<sup>128</sup> 이것이 30년 넘게 진행해온 전도 동력 세미나와 그의 40년 넘는 목회의 근간이었다.

<sup>125</sup> Ibid., 195.

<sup>126</sup> 민경설, 화요 전도특공대 강의, 2024.08.20.

<sup>127</sup> 민경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47.

<sup>128</sup> Ibid.

## B. 광진교회의 전도 철학과 전도 원리

### 1. 광진교회의 전도 철학

민경설 목사는 1984년 3월 15일에 15평 개봉아파트에서 두 명의 개척 멤버를 데리고 광진교회(빛이 나가는 교회)를 시작했다.<sup>129</sup> 그가 광진이라고 교회를 이름한 것도 그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 빛은 복음의 빛,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도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민경설 목사에게 전도의 소원을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적 교인 만 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41년 동안 민경설 목사가 굳건히 지켜며 실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철학들이 광진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성도의 표지이다.** 민경설 목사는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한 것보다, 봉사를 많이 한 것보다. 사회에서 성공한 것보다 지옥에 갈 영혼을 전도한 것이 하나님을 만 배나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역설한다. 또 한 가지, 성도가 구원받은 확실한 표지 중의 하나가 전도라는 것이다. 사과나무는 자신이 사과나무임을 사과 열매로 증명하고, 배나무는 자신이 배나무라는 것을 배란 열매로 증명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예수를 증언하는

<sup>129</sup> 민경설, 『가슴이 두근두근』 (서울: 규장, 2025), 47.

전도로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전도자가 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9:16) 요약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 표지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다.

아덴만 작전의 영웅 김석균 선장을 살린 이국종 의사는 <골든아워>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의사의 일이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 의사인 나는 내가 치료한 환자 명단과 진료 실적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다.<sup>130</sup>

의사가 할 일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고, 의사는 외적인 지식과 위치와 힘과 명예 등등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렸고 아픈 이들을 치료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전도이고, 성도는 자신의 사명인 전도에 얼마나 힘썼느냐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둘째는 전도의 주체는 전도자가 아닌 하나님이다.** 마이클 그린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sup>130</sup> 이찬수,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서울: 미래목회연구원, 2011), 33.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다”<sup>131</sup>고 말하면서 어떤 전도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절대 일으킬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역사가 일어남을 밝히고 있다. 로버트 콜만도 그의 저서 *Evangelism on the Cutting Edge*에서 “성부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창시자이며 영원 전부터 복음 전도를 계획하셨다”<sup>132</sup>고 말했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강조한다.<sup>133</sup> 민경설 목사도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도 역사의 도구이지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다가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로 전락 된다고 지적한다.<sup>134</sup> 전도에서 인간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적인 참여자 혹은 도구에 불과하지 절대 주체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는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전도자의 순종이 만들어 낸 100% 하나님의 역사다.

**셋째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야 한다.** 이것은 민경설 목사의 목회 전반에 흐르는 중심 철학이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자 안에서 기도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전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 안에서 전도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자 안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목회 잘 하려 하지 말고, 목회자 안에 목회케 하시는 주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민경설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영성학자는 오스왈드

<sup>131</sup> 백만숙, 『평신도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도역량강화 연구』, 16.

<sup>132</sup> Ibid., 35.

<sup>133</sup> Ibid.

<sup>134</sup> 민경설,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능력』, 18-19.

챔버스(Oswald Chambers)이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을 무척 좋아한다. “성도의 온전함이란 주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과 나의 일이 분리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을 오직 주님이 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이다.”<sup>135</sup> 이 말뜻은 믿음으로 성도가 주님 안에, 주님이 성도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은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자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성부 하나님의 일로 이루셨고, 예수님은 자신 속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을 믿으신 것과 같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에 도구가 된 것이다.

민경설 목사는 전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믿음의 정의는 대상, 진리, 사실이 존재하고, 그 존재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믿는 자에게 실체가 역사하도록 하는 태도,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진리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며 그분의 인격이나 능력, 사역,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내적·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sup>136</sup>

이 말은 믿음은 단순한 인지적 동의나 감정적 확신을 넘어, 명확한 대상과 진리를 전제로 한 전인격적 신뢰와 의지의 태도임을 뜻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인격과 능력, 사역과 말씀을 삶 전체로 신뢰하는 내적·외적 결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sup>135</sup> 민경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7.

<sup>136</sup> Ibid., 26.

믿음은 인간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신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믿음은 교리적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지속적 관계와 실천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민경설 목사는 잘 믿을 때 전도가 잘 된다는 성구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을 예로 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16:31).<sup>137</sup>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갇혔을 때도 주님께 감사 기도와 찬송을 하였다. 그 결과 주님이 감옥 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빌립보 간수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드리고 자기처럼 믿으면 구원, 즉 전도는 절로 되어진다고 말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도라는 것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절로 되어 진다는 것이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6:29)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일이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 즉,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전도자는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전도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전도의

---

<sup>137</sup> Ibid.

주체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이 전도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도에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한다.

**넷째는 전도자는 십자가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민경설 목사가 가장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나(I)’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이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란 전도자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학교에 입학하여 그 과정을 밟았듯이, 신약 성도들은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운 십자가 학교에 입학해서 내(거짓 자아)가 죽는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나라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설 목사는 십자가는 전도자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방해하는 육신의 모든 장벽 즉,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잘못된 성취의식 등을 헐어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38</sup>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 학교에 입학해서 옛 자아, 옛 본성, 거짓 자아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십자가 체험이 필수라고 역설한다.<sup>139</sup> 전도자가 날마다 가지고

<sup>138</sup> 민경설,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능력』, 32.

<sup>139</sup> Ibid., 33.

있어야 할 자세는 예수님이 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9:23)는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할 때 성령께서 전도자를 독점하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축복하신다.** 위와 같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전도할 때 (1)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시는 체험 (2) 타인의 허물을 덮어 줄 줄 아는 사랑의 은사 (3)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을 수 있는 권능 (4)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상급 (5) 이 땅에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설교한다.<sup>140</sup>

## 2. 광진교회 전도 원리

광진교회 교우들은 민경설 목사의 ‘경작의 7원리’를 머리에 담고 전도하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sup>141</sup> **첫째, 씨를 준비한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씨앗이다. 마찬가지로 전도자에게는 나가서 심을 복음의 씨, 즉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나가서 전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일꾼이 필요하다.** 전도할 때는 실제로 두 명 이상의 일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명이 한 조로 전도하려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한 사람이 전도에 의욕과 담력을 상실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밭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작할 수 있는 밭 즉,

<sup>140</sup> 민경설, 『전도동력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264.

<sup>141</sup> 민경설, 『전도이력카드 수첩 광진교회 전도특공대』 (서울: 미래목회 연구원, 2016), 3-4.

전도대상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가 전도를 계속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계속 누구에게, 어디로 찾아가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불신자를 전도 대상으로 확보하면서 꾸준히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넷째, 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 거름은 기도를 말한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잘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체험으로 알 수 있다. **다섯째, 파수꾼이 필요하다.** 파수꾼은 전도되어 나온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는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 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마귀는 모든 친척, 친구, 또는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 소리를 하게 함으로써 새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전도 후에 양육하는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추수꾼이 필요하다.** 전도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성경 말씀에서도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친구의 네 명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전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전도자끼리 선의의 경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전도자끼리 서로 연합하고 돕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서로 돕는 추수꾼처럼 협력해야 한다. **일곱째 비전을 가져야 한다.** 전도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야를 가져야 한다. 즉 전도의 비전,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에 전력해야 한다. 광진교회의 전도대원들은 이 원리를 매일 가지고 다니는 전도수첩에서 숙지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전도대상자를 위해 그리고 전도되어진 새신자의 양육과 이를 다시금 전도자로 재생산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광진교회의 전도 사역은 민경설 목사의 ‘경작의 7원리’를 핵심 실천 틀로 삼아, 전도를 단회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원리는 말씀 준비를 전도의 출발점으로 삼고, 팀 사역을 통한 동역 구조를 강조한다. 또한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발 확보’로 이해하며, 기도를 전도의 필수적 토양으로 규정한다. 전도 이후에는 새신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신앙의 지속성을 도모한다. 나아가 전도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적 추수 사역으로 수행되며,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와 양육, 재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전적 전도 모델을 형성한다.

### C. 광진교회의 성경적 전도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기도전도, 말씀전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전도, 성육신적 섬김전도, 선을 넘는 전도, 제자화 전도자 재생산 전도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광진교회에서 연구자의 목회에 담아내고 싶은 성경적인 전도 모습들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 1. 광진교회의 기도 전도

광진교회에는 매일 새벽기도회, 매일 심야 기도회, 화요 새벽 특별기도회, 금요성령 기도회, 산상 기도회 등등 많은 기도회가 있다. 이때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환우들이 치유되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등등 초대교회와 같이 갖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화요

전도 특공대 훈련에서도 강의 끝나고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전도수첩<sup>142</sup>에 적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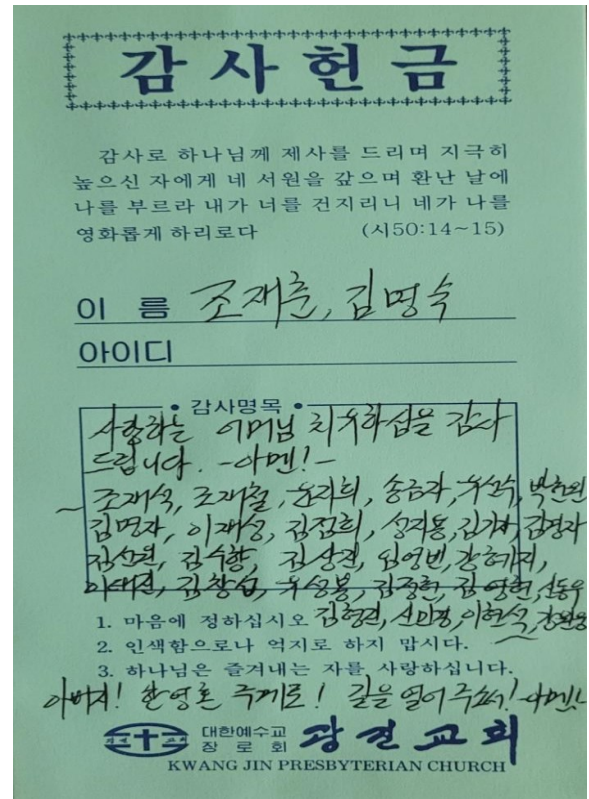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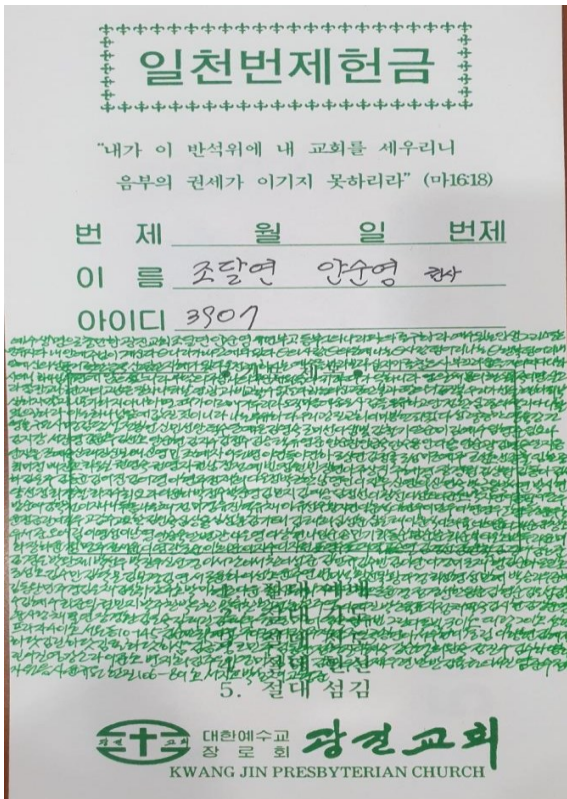


그림 4-1. 태신자 전도를 위한 일천번제      그림 4-2. 태신자 전도를 위한 감사헌금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회나 심야기도회나  
 공식예배에서 봉헌할 때, 봉투에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4-1, 4-2와  
 같이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sup>143</sup>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한 시까지 2시간 동안 전도 특공대 훈련  
 세미나가 열린다. 여기서 민경설 목사의 전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전도 이력 수첩에  
 적힌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sup>142</sup> 광진교회 전도 수첩 샘플

<sup>143</sup> 광진교회 감사헌금 봉투에다 전도자는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서 한다.

광진교회 전도가를 부르고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친다.

▶전도가◀

## 한 영혼을 주께로!

작사: 임경섭  
작곡: 임경섭

템포: (전도대의 프고송)

저길 일 - 은 자 보 라 저기 눈 먼 영 혼 들 어 서  
저기 귀 - 먹 은 자 들 저기 낙 망 한 영 혼

가서 구 하 라 주 님 명 명 하 셧 다 광

진 의 성 도 어 모 - 무 입 어 나 -

한 영 혼 을 주 - 님 앞 으 로 전

도 의 동 력 을 모 두 - 다 힘 입 어

될 일 한 영 - 혼 주 께 로

그림 4-3. 광진교회 전도가

(구호 준비: 광진~~~, 구호시작: 전도 동력으로/나도 한 영혼/할 수 있다/하면  
된다/해보자/얍)

이어서 전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전도 명함(그림 4-4)과 교회 신문과 전단지나 화장지, 물티슈, 건빵 등을 가지고,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전도하는데, 지역을 거점을 정하여 전도한다. 지정 거점에 전도 마차를 끌고 가, 파라솔을 치고 전도 캠프를 설치하고 전도하는데 여기서 접촉한 전도 대상자는 차후 방문 전도를 통하여 관계성 전도로 발전시킨다. 전도 활동하면서 전도 대상자는 ‘전도 이력 수첩’에 기록 관리하고,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면 ‘전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전도 수첩에 기록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그림 4-4. 천한귀목사 전도명함

광진교회의 전도 동력의 뿌리는 새벽 기도다. 광진교회의 새벽기도회는 타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새벽기도회 찬양대가 있고 둘째는 매일 교구별로 기도 특공대가 가동된다는 점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의 성도가 ‘빌기를 다하매’ 일어난 부흥 사건이었으며, 이후 베드로의 삼천 명, 오천 명, 전도 결실도 기도가 선행되었던 점을 모델로 하여 4개 성전 매일 300명 정도의 기도 특공대가 새벽을 깨우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는 없는, 광진교회 교회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기적은 일어난다!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회’가 있다(그림 4-5).



그림 4-5. 광진교회 3시간 돌파 연속 기도

1단계 흥해 작전은 한 시간 돌파 기도이다. 실천자들에게는 노란색 카드를 배부한다(그림 4-6). 민경설 목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역설적 진리가 담겼다고 주장한다. 첫째, 육적으로는 고센 땅이 좋지만, 흥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면서 육(거짓 자아)은 죽고 영(참 자아)이 사는 훈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명예를 저야 자유 해진다는 역설이다. 편안하면 좋을 것 같아도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란 명예를 질 때 성령 안에서 자유 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약할 때 강해진다는 진리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재력, 권력 등 세상 적으로 힘이 있을 때 주님이 쓰시기 힘들고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신다는

역설이다.<sup>144</sup>

2단계 요단(흘리간다)강 작전은 두 시간 돌파 기도이다. 실천자들에게는 녹색카드를 배부한다(그림 4-6). 이 기도는 말씀으로 심중(心中)의 생각을 바꾸는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2000 규빗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도자가 한 시간 기도 후에 광진교회가 발행한 200구절 암송 책자를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붙잡힌 기도를 하도록 유도한다.<sup>145</sup> 이때 말씀의 강력한 파워가 성도들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자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주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연구자도 500구절 이상 암송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3단계 가나안 작전은 세 시간 연속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실천자들에게는 빨간색 기도 카드를 배부한다(그림 4-6). 영적인 의미는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7족속 31왕들을 제거하듯이 3시간 기도하면서 기도자 속에 가나안 7족속(31왕)이 상징하는 마귀의 진지를 훼파하는 기도다. 가나안 칠 족속과 그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모리 족속은 교만, 윗 사람을 들이 받음, 은혜를 못 받게 함의 의미이다. 둘째 헷 족속은 두려움과 공포로 신앙적

<sup>144</sup> “표적이 있는 삶, 기적은 일어난다”란 주제로 열린 제45회 전국 목회자·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주강사인 민경설목사의 셋째 날(2025년 8월 5일 6시) 새벽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훈련 강의 요약.

<sup>145</sup> “표적이 있는 삶, 기적은 일어난다”란 주제로 열린 제45회 전국 목회자·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주강사인 민경설목사의 셋째 날(2025년 8월 6일) 새벽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훈련 강의 요약.

전진을 막음의 의미이다. 셋째,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으로 땅에 속하여 세상적인 돈과 쾌락을 추구함의 의미이다. 넷째, 가나안 족속은 상거래에서 폭리를 추구함, 과도한 이익 추구의 의미이다. 다섯째, 브리스 족속은 무절제·무질서·방탕의 의미이다. 여섯째, 히위 족속은 성적 쾌락 추구의 의미이다. 일곱째 여부스 족속은 아말렉같이 약자를 짓밟는 속성을 의미한다. 폐일언하면 가나안 기도 작전은 기도자 심령 속에 사로잡고 있는 가나안 칠 족속에 쓴 뿌리를 제거하면서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쓴 뿌리처럼 자리 잡은 우리 심령 밭에 잡초들을 제거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sup>146</sup>



그림 4-6. 1·2·3시간 기도카드

<sup>146</sup> Ibid.

이에 대해 안순영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47</sup>

행사의 일환으로 ‘기적은 일어난다!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회’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기도회는 금요성령치유집회와 새벽특별집회 및 화요새벽기도회 시민경설 연합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이어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흥해 작전은 한 시간 돌파 연속기도, 2단계 요단강 작전은 두 시간, 3단계 가나안작전은 세 시간 돌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실천자들에게는 각각 노란색과 초록색, 빨간색 기도카드를 배부한다. 올해에는 총 30시간 기도 실천을 목표로 진행되는 연속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연구자도 ‘기적은 일어난다!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회’를 하면서 체험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3시간을 넘어 실제 5시간 넘게 기도하였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이 한 성도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둘째는 두 시간째 성경 암송 200구절 성구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들이 주는 파워가 전이되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셋째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저주<sup>148</sup>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삶에서 사라졌다.

## 2. 광진교회의 말씀 전도

매일 새벽 말씀과 전도특공대 화요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을 뿐만

<sup>147</sup> 안순영,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회 실시,” 『광진교회 계간지』, 2025년 4월 20일.

<sup>148</sup> 2025년 7월 4일 밤 금요성령집회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란 제하에 설교 중 가르친 내용

아니라 성경 100구절<sup>149</sup>(그림 4-7)과 200구절<sup>150</sup>(그림 4-8)을 암송하여 각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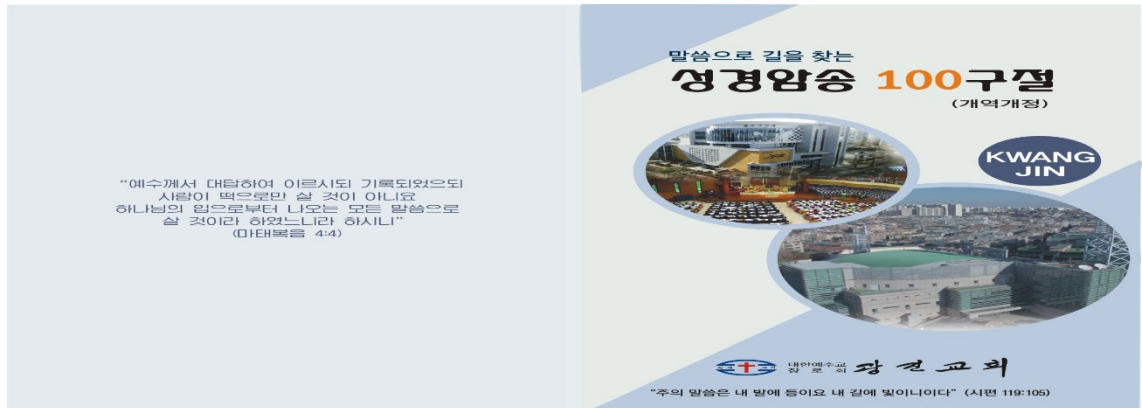


그림 4-7. 광진교회 100구절 성경 암송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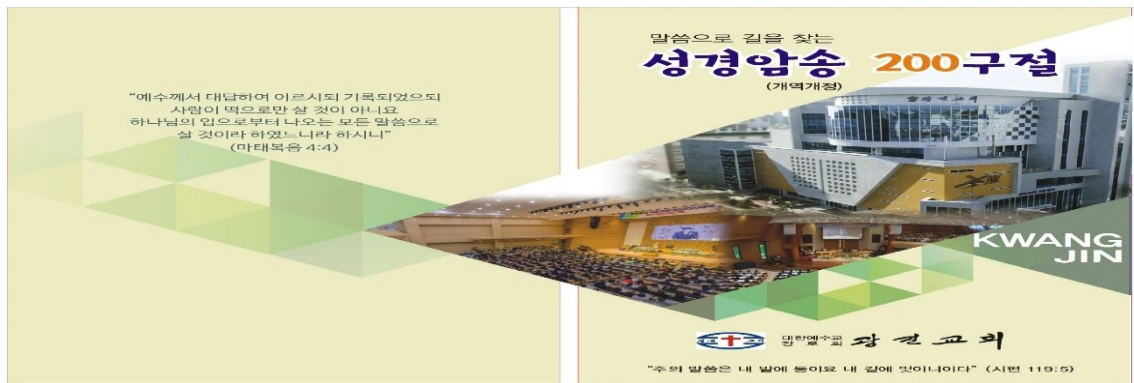


그림 4-8. 광진교회 200구절 성경암송책

민경설 목사가 매주 화요일 전도특공대 세미나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sup>149</sup> 광진교회는 2015년에 전교인 성경 암송 100구절 책자를 발간하여 전도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sup>150</sup> 광진교회는 2019년부터 기존 100구절에서 200구절로 늘린 암송 책자를 발간했다. 부록 참조

실상(히11:1)을 붙잡아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 주님이 함께 역사(막16:20)하사 전도의 열매가 실체로 나타난다고 것이다.<sup>151</sup>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노상에서 만난 자들이나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와 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 3. 광진교회의 능력 전도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는 장신대 재학 중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상가에서 개척했다. 그의 목회는 장로교 전통에 근거한 성경 중심적 강해 설교, 평시에는 성경공부 위주였다. 하지만 그의 목회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은 계기가 있었다. 한 여자 집사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부딪치는 바람에 죽었다. 집에서 시신을 방에 뉘여놓고 의사나 장의사를 불러야 하는데 그녀는 민경설 목사에게 심방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민경설 목사가 가서 1시간 가까이 안수했는데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노평호 집사라는 분이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아무개 권사의 며느리가 난간에 떨어져 뼈가 다 부러져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시어머니 권사가 며느리를 들것에 싣고 택시를 타고 수요 저녁 예배드리고 있는 민경설 목사를 찾아와서 안수를 부탁했다. 한 시간 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수하였는데 그 며느리의 뼈들이 다시 붙고 정신이 돌아왔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난간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도행전적 기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때부터 광진교회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교회로 소문이

<sup>151</sup> 광진교회 전도특공대 세미나 2024년 5월 14일 설교

났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sup>152</sup>

또 한 번은 부흥 강사로 제주도로 집회를 나가게 되었다. 제주도란 뱀 우상이 가득한 섬에 강사로 간다. 그때 그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뱀 귀신 들려 있었다. 집회에서 귀신이 역사하자 민경설 목사는 대적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그 여전도회 회장이 10미터쯤 뒤로 나가 자빠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그녀를 괴롭혔던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였다. 근래에도 조00 성도가 점심시간에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살려달라며 교회로 찾아왔다. 평소에도 그녀는 귀신이 역사한다며 칼로 손목에 몇 번 자해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민경설 목사의 안수기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능력 전도 덕분에 광진교회가 재적 만 명 성도로 부흥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 에너하임 포도원교회에도 있었다.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존 워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 전도는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또한 그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의 표현이다.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적과 기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시위와 함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능력 전도에 있어서 복음의 거부감은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제거되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용성이 매우 높게 되기 때문이다.<sup>153</sup>

<sup>152</sup> 2024년 10월 6일 주일 저녁예배 <당신의 이름은 업그리드 되었습니까?> 설교 중에 간증

<sup>153</sup>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의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한울출판사, 1993). 90.

이 교회에서 짧은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갖가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 6,000명까지 급성장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기록한다. 다시 말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말이다. 전도와 성령의 치유, 축사, 능력 행함 등등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리버티 세미나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엘머 타운즈(Elmer Towns)는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빠른 교회 성장을 보이는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내는 오순절 계통이라고 말했다.<sup>154</sup>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전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4. 광진교회의 성육신 섬김 전도

광진교회에는 초대교회적인 섬김이 있다. 사도행전 4장 32-35절을 보면 은혜받은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며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교회에서 매일 구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진교회도 매주 화요일에 독거노인과 불우 이웃들에게 반찬과 도시락 나눔을 한다.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교구별로, 권사회별로, 선교회별로, 찬양대별로, 주일학교 부서별로, 복지관별로 각각 불우한 이웃들에게 성금과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

<sup>154</sup> Ibid., 89.



그림 4-9. 100가지 천사운동-연탄배달



그림 4-10. 100가지 천사운동 후원금품 전달

광진교회는 서울시에서 위탁한 2개의 복지관이 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삼정종합복지관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화원종합 사회복지관이 그것이다. 이들이 연합하여 봄가을로 2번 광진교회 봄가을 새생명전도 축제 전에 교회가 위치한 개봉동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페스티벌’ 이란 간접 전도 행사를 개최한다. 바자회도 하고, 경품행사도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고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소수는 교회 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유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사화했다.<sup>155</sup>

광진교회는 2010년 연말부터 새봄을 맞기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100가지 천사 운동’을 활발하고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광진교회는 매년말과 연초에 100가지 천사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소외된 어르신과 노인 환자 시설, 어린이나 장애인 시설을 비롯하여 섬김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말에는 산하 사회복지 및 교육 기관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광진교회 사랑 나눔 축제를 교회 안팎에서 진행하였다. 교회 산하의 광진선교어린이집,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삼정종합사회복지과, 꿈이 있는 어린이집, 삼정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화원데이케어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사회복지 페스티벌은 교회 및 광진선교어린이집 앞과 인근에 2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복지상담소 운영, 주민 체험활동 진행, 어린이 운동 체험, 다양한 먹거리 장터 및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경품권 추첨을 통해 로봇 청소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시상하였다.



그림 4-11. 광진바자회1



그림 4-12. 광진바자회2

<sup>155</sup> “광진교회 신문 166호”, 2024년 4월 28일 발행

본 연구에서 광진교회의 ‘100 가지 천사 운동’ 과 지역사회 사랑 나눔 축제 사례는 교회의 공공적 실천이 전도와 신앙 증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사례 연구 자료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전도를 직접적인 복음 선포나 결신 유도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 섬김과 공공적 실천으로 구현하는 성육신적 전도(incarnational evangelism)의 실제적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교회 산하 복지·교육 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절된 종교 공간이 아니라, 공공선(common good)을 창출하는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사례는 광진교회의 전도 사역이 단기 행사 중심의 활동을 넘어, 지속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복음의 신뢰성을 증언하는 전도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신학적 분석 자료라 할 수 있다.

광진교회 주변에는 가난한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전도할 양으로 2017년 3월에 어르신 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개설했다. 어르신 예배 시간에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노인들의 필요에 맞는 놀이, 건강강좌, 재정 강의 등을 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 봄부터는 가난한 노인들을 배려하여 계절에 맞는 과일들을 한 봉지씩 나누어 드렸다. 그랬더니 처음에 30명 모였던 어르신들이 350명까지 전도되었다.

##### 5. 광진교회의 선을 넘는 전도

광진교회는 해외에 나갈 선교사를 선발하여 1년 동안 교회에서 훈련하고 난 뒤에 파송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국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전도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안산 지역에 이주민 센터를 건립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상담 서비스와 예배처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2020년에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하여 2019년 6월 16일 주일에 텅콩 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광진미얀마 교회를 설립했다(그림 4-13, 4-14).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흥하여 250 정도의 성도들이 광진교회에서 제공한 건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림 4-13. 광진미얀마교회 현판식



그림 4-14. 광진미안마교회 예배

#### 6. 광진교회의 재생산 전도

광진교회는 피전도자가 교회에 새로이 전도되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양육 과정을 밟으며 본인도 전도자로 거듭나게 한다(그림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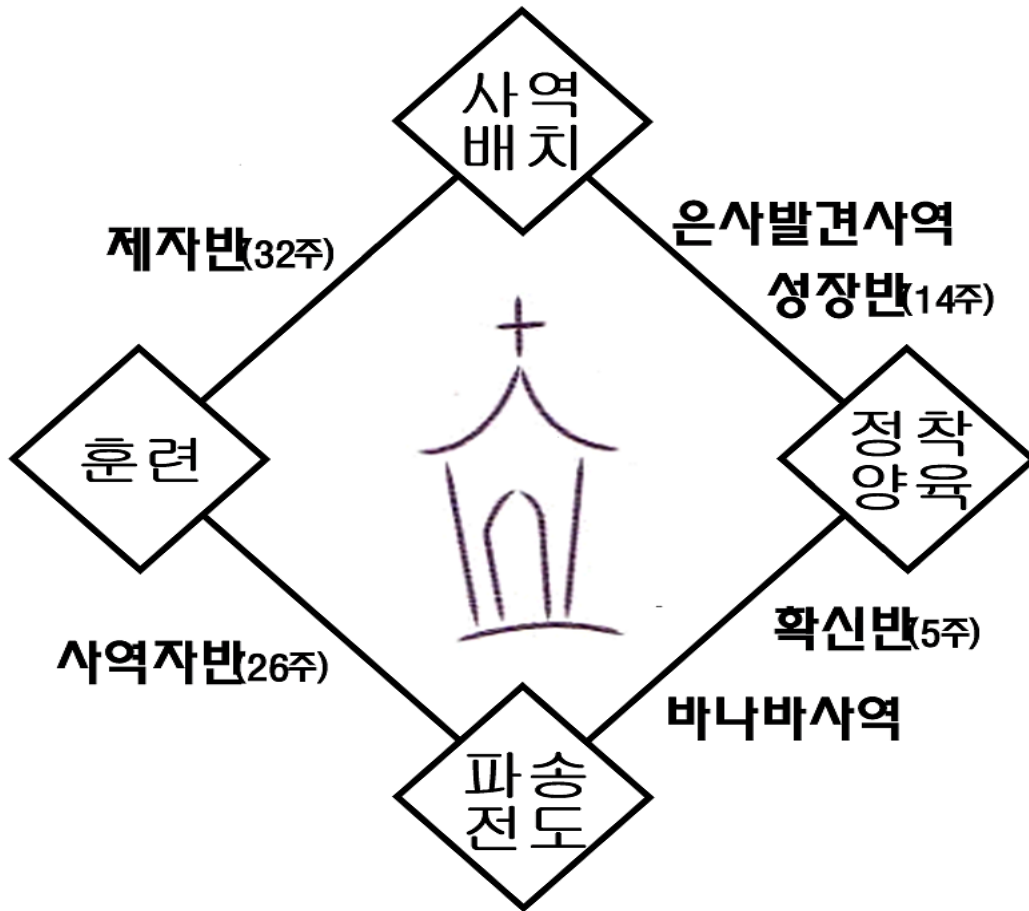


그림 4-15. 광진교회 재생산 전도자 양육도

광진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먼저 새가족 확신반에서 복음에 관한 5주 교육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수료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제자훈련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멘토는 멘티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1년간 섬긴다. 그리고 1년에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는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전도자로서 재충전을 받는다.

#### 7. 광진교회의 축복의 멘토 양육 시스템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에 대하여는 일정한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1:1 양육 시스템인 ‘축복의 멘토’ 협약을 맺도록 한다. 멘토링 대상은 초신자와 재등록자 그리고 기신자로 3분하여 각각 ‘골드 멘토’와 ‘실버 멘토’ 및 ‘코퍼 멘토’ 협약을 체결한다. 6개월을 멘토링 기간으로 설정하되, 멘티(축복의 사람)의 신앙 성장 상황을 보아가며 3개월에 조기 수료하거나 1년 뒤에 수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축복의 멘토에게 맡겨진 직무는 4대 기본 명령과 3대 부속 명령으로 나뉜다.

4대 기본 명령은 기도 멘토링(축복의 사람을 위하여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며 기도를 지도한다), 전화 멘토링(일주일에 2회 이상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신앙을 세워준다), 말씀 멘토링(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 교제를 가지고 지도하며 신앙 성숙을 돕는다), 그리고 예배 멘토링(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에 연락하여 교회로 인도)로 이루어진다.

3대 부속 명령은 영접 멘토링(한 달에 2회 이상 주일 예배당 앞에서 만나 예배로 인도한다), 방문 멘토링(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신앙적으로 양육한다), 그리고 교우 멘토링(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일주일에 1명 이상의 교우를 소개)로 구성된다.

또 멘토가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출석 상황 등을 기재한 ‘멘토 사역일지’를 작성한다. 사역일지는 매월 마지막 주에 축복의 멘토 관리팀에 제출하고, 관리담당 교역자가 담임목사께 보고하고 사역 과정을 지도한다.

이어서 전도자로 선발하여 전도특공대에 가입시켜 매주 화요일 전도특공대 훈련을 받으며 현장 전도에 투입이 된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작은교회 리더 세미나에서 1년간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는다. 그리고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어 구역이 형성될 정도가 되면 작은교회(구역) 리더로 임명되어 교회내

작은 교회인 구역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면 피전도자들도 전도자로 세워지고, 구역의 분가가 일어나고, 또 피전도자들이 전도자들로 훈련되어 전도하는 제자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년에 겨울과 여름 두 번씩 소망 수양관에서 전도동력세미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2박 3일간 종합적으로 전도에 관해 집중훈련을 받으며 전도동력을 재충전 받는다.

한국에서 제자훈련 세미나와 더불어 30년 넘게 정평이 나있는 광진교회가 주관하는 전도동력 세미나가 있다. 일명 ‘전동세’라 불리는 전도동력 세미나는 1996년 12월 9-12일까지 양수리 수양관에서 미래목회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때 강사는 찰스·프란시스 헌터 부부, 오성춘 박사, 차영배 박사, 민경설 목사, 김보석 목사였다.<sup>156</sup> 2025년 2월까지 30년 동안 46회에 걸쳐 연인원 20만 명이 넘게 수료하였다. 2024년도에는 국민일보에서 시상하는 세미나 부문 최우상에 선정될 정도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세미나와 함께 30년 넘게 진행되어온 양대 최우수 세미나로 인정받고 있다.

민경설 목사의 전도에 관한 전제 조건이자 기본 명제는 ‘전도자가 전도동력을 받으면 절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전도 동력’이 전도의 키워드이며 성장의 핵이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광진교회의 교인들은 전도 동력을 충전 받기 위해 전교인 수련회로 열리는 봄가을 전국 목회자·평신도 전도동력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위 ‘미지근하고 평범한’ 신앙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교인들도 이 세미나에 참석한 뒤 열심 있는 전도자로 거듭난다.

---

<sup>156</sup> 광진교회 2024년 요람, 5.

이 전도동력세미나를 국민일보 손동준 기자가 다음과 같이 2024년 5월 29일 국민일보에 기사화 했다.

미래목회연구원(원장 민경설 목사)의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세미나’는 1993년 민경설 서울 구로구 광진교회 목사가 창립해 31년간 한국 교회의 전도 열풍을 이끌어 왔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부흥의 소망이 약화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 상황 속에서도 전도동력세미나는 여전히 매회 당 1,000명 내외의 평신도와 목회자가 참석하며 교회 성장의 대안 집회로 위상을 굳게 세워나가고 있다. 세미나 이름에 등장하는 전도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도할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전도하려는 의욕은 넘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전도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게 세미나의 주 메시지다.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부흥의 위기도 전도동력을 활성화하면 극복할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인 만큼 목회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추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 는게 민경설 목사의 설명이다.

전도동력 세미나의 특징에 대해 민 목사는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강사인 제가 특별한 말씀이나 전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의 병이 낫는 일도 더러 있었다고 했다. 민 목사는 “특별히 환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나타난 것” 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됐고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전도동력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의 부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사회봉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의 중심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도동력 세미나의 목표는 교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라며 “교회는 인격 교화소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민 목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 고 단언했다. 그는 “이단들이 판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신학적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머물게 될 것” 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민 목사는 “전도동력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한국교회가 전도동력세미나를 협력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sup>157</sup>

<sup>157</sup>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962068> 2025년 1월 10일 접속

미래목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세미나’는 1993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도 훈련 사역으로, 한국교회의 전도 침체 국면 속에서도 안정적인 참여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전도의 실패를 개인의 열심 부족이 아니라 ‘전도 동력’의 상실로 진단하며, 전도의 주체를 인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두는 신학적 관점을 강조한다. 특히 전도는 사회봉사나 윤리적 개선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 기사는 한국교회 전도 이해가 전도 기술 중심에서 영적 동력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도 침체에 대한 한국교회 내부의 자기 진단, 전도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인식, 그리고 영적 체험과 성경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드러내고도 있다.

광진교회 전도 동력 세미나는 1996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한국교회 최장수 전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20만명도 넘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전도자로 양성하였다.<sup>158</sup> 그리고 2024년 국민일보 선정 한국교회 최우수 세미나에 선정될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전도자 양성에 관한 한 정평이 났다.

초대교회 같은 성경적인 전도로 광진교회는 이런 목회의 결실을 이뤄냈다. 1984년 창립한 이래 20년 만인 2004년 말 현재 청장년 출석 교인이 3,655명을 달하게 되었다. 이후 10년 만인 2014년 말에는 6,636명으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원입교인과 교회학교 인원을 합하면 재적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섰다. 10년 사이에

---

-광진교회 전도의 실제

<sup>158</sup>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 2025년 12월 15일 접속

82% 성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성장세는 같은 기간에 광진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출석 교인 1천 명 이상 5개 교회의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5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지난 2009년에 비해서는 33%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 노회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1% 이상 총 교인 수가 감소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세가 둔화 내지 정체되고, 최근에는 오히려 총 교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때에 이와 같은 성장세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인 1천 명 이상 규모의 교회라면 자체의 구심력 때문에 중소 규모의 교회에 비해 여전히 성장 역동이 큰 편인데도 최근 10년 사이에 역성장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교회가 계속 큰 규모의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한국교회에 상당히 고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림 4-16 광진교회 서울성전 2부 예배



그림 4-17 광진교회 시흥성전 2부 예배

광진교회의 전도자 재생산 훈련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전도자에 의해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5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각종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받고 더 나아가 매주 목요일에 개설된 성서대학에서 2년 동안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말씀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기도훈련은 새벽기도, 금요성령 철야기도회, 기도학교 등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또 제자훈련과 섬김훈련과 리더십 훈련을 받고 새신자들의 1:1 멘토가 되어 새신자를 또 다른 전도자로 양육하며 1년에 두 번 전도동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도동력을 충전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본인과 같은 전도자를 재생산하며 전도자의 직무(딤후4:5)를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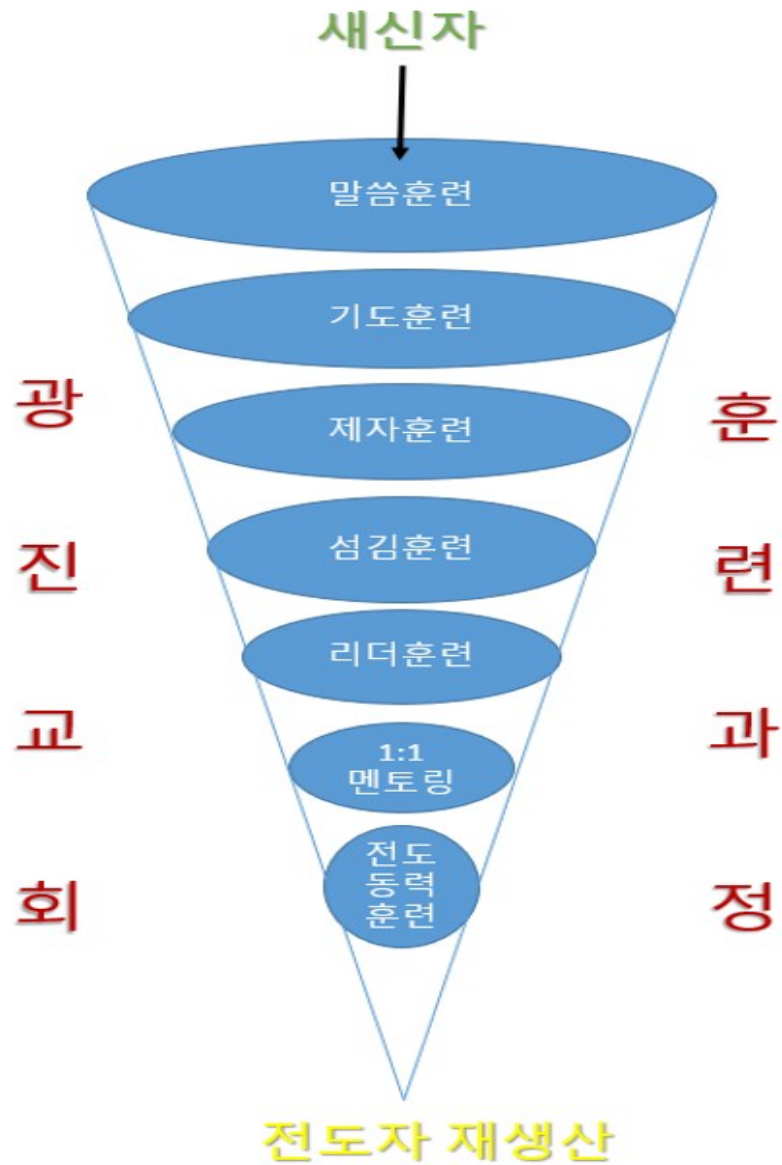


그림 4-18. 전도자 재생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광진교회 전도자 재생산 깔때기」는 전도를 단회적 결신 사건이 아니라 제자화와 재생산에 이르는 지속적·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통전적 전도 구조를 시각화한 모델이다(그림 4-18). 이 깔때기 구조는 2장에서

언급한 한국교회 전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전도의 본질인 제자 삼음과 전도자의 재생산을 교회 시스템 안에 구현하고자 하는 신학적 시도에서 도출되었다. 갈때기의 최상단에 위치한 ‘새신자’ 단계는 복음 선포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유입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도행전 2장 41 절에 등장하는 ‘프슈카이(ψυχαί)’ 개념과 상응하는 단계로, 아직 제자라기보다는 복음에 반응한 가능성의 주체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을 전도의 출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결신과 제자화를 동일시해 온 기존 전도 이해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교정한다. 이후 갈때기는 말씀훈련과 기도훈련의 단계를 거치며 점차 좁아진다. 말씀훈련은 통성경 신학에 기초하여 성경을 과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윈스토리코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며, 이는 전도의 내용과 방향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도훈련 단계는 전도를 인간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도자의 내적 동기와 영적 기반을 형성한다. 이 두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소’는 실패가 아니라, 피상적 신앙에서 헌신적 제자도로 이행하는 필연적 정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갈때기의 중·하단부에 해당하는 제자훈련과 리더훈련 단계는 전도의 목적이 단순한 교회 정착이 아니라 사명적 성숙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제자훈련 단계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신앙의 인지적 이해를 넘어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어지는 리더훈련 단계는 제자 개인을 공동체적 사역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소그룹 인도와 말씀 전달, 관계 전도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훈련한다. 이어서 1:1 멘토링과 전도동력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충전을 받음과 함께, 갈때기의

최하단에 위치한 ‘전도자 재생산’ 단계는 본 연구의 진정한 성경적 전도 이해가 수렴되는 핵심 지점이다. 이는 마태복음 28 장 19-20 절의 지상명령에 나타난 다섯 개의 동사가 모두 현재분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도가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재생산 구조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도의 완성은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그 회심자가 또 다른 전도자이자 제자를 세우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깔때기는 단순한 축소 모델이 아니라, 전도자가 다시 전도의 출발점으로 확장되는 순환적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광진교회 전도자 재생산 깔때기」는 전도를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교회의 본질적 사명 수행 구조로 재정의하며, 통성경적 전도 신학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교회 전도 모델을 제시한다.

## V. 통전도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

조병호 박사는 구약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으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실현으로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교회)을 통한 하나님 나라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결국 성경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수렴시켰다. 마찬가지로 연구자도 신구약성경과 예수님의 전도 양상들인 관계전도, 말씀전도, 기도전도, 능력 전도, 성령전도, 선을 넘는 전도, 제자훈련, 성육신 섬김 전도 등이 모두 땅끝까지 복음화 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제자화 재생산 전도로 수렴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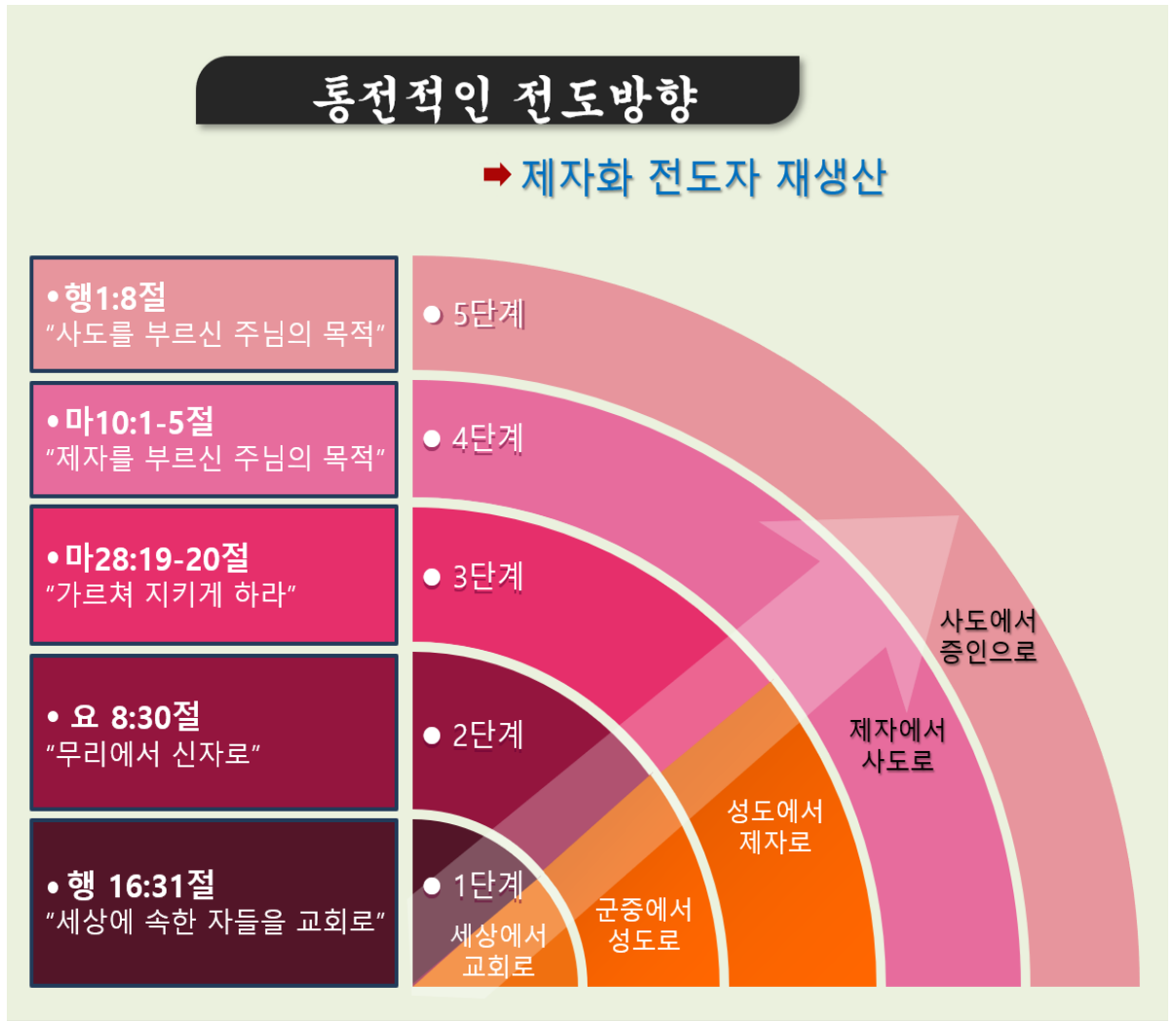


그림 5-1. 통전적인 전도 방향성

그림 5-1은 신·구약에 나타난 다양한 전도

양상(관계·말씀·기도·능력·성령·선을 넘는 전도, 제자훈련, 성육신·섬김 전도 등)이 결국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화 재생산 전도’ 라는 한 방향으로 수렴됨을 시각화한 것이다. 도식의 5 단계는

‘세상→교회(행 16:31)→무리에서 신자(요 8:30)→제자(마 28:19-20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마 10:1-5)→증인(행 1:8)’ 로 심화되며, 전도의 목표를 회심 사건이

아니라 증인 공동체로의 성숙에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예수님의 승천 당부를 “선을 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행 1:8)” 와 “가르치며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 로 정리하며, 그림의 방향성이 이 두 축을 통합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전도자 재생산’ 은 피전도자를 가정·교회 안에서 다시 전도자로 세워 세상에 파송함으로 전도의 계속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담보하는 구조로 정의된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통전도 모델의 핵심을 “복음 전달→제자화 훈련→사역/파송→재생산” 의 선순환으로 제시하며, 한국교회 전도 위기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제자-증인 재생산 체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 방향성에 맞추어 만든 양육계획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 새신자 양육계획도

본 그림은 전도를 “행사→결신” 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반-성장반-제자반-사역자반-증인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자화(재생산) 양육 체계로 구조화한 로드맵이다. 출발점(복음/확신 단계)은 새가족이 복음 이해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5주 교육을 제공해, 이후 훈련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확신 형성’ 위에 서도록 설계한다. 성장반은 통성경(통구구단 1단)·QT·기도·암송을 생활화하고 전도 실천을 포함해, 성경의 큰 흐름을 삶의 경건 루틴과 사역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제자·사역자 단계는 통성경적 접근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수동적 성도를 섬기는 리더/사역자로 전환시키며, 사역자반(27주)은 특히 사역자를 제자화 재생산의 주체로 형성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최종 증인 단계는 사역자반 수료자를 대상으로 빌립전도학교 중심의 전도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개인 전도에 머물지 않고 자기와 같이 전도할 제자를 재생산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위의 양육계획 하에 아래 포다이아몬드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훈련체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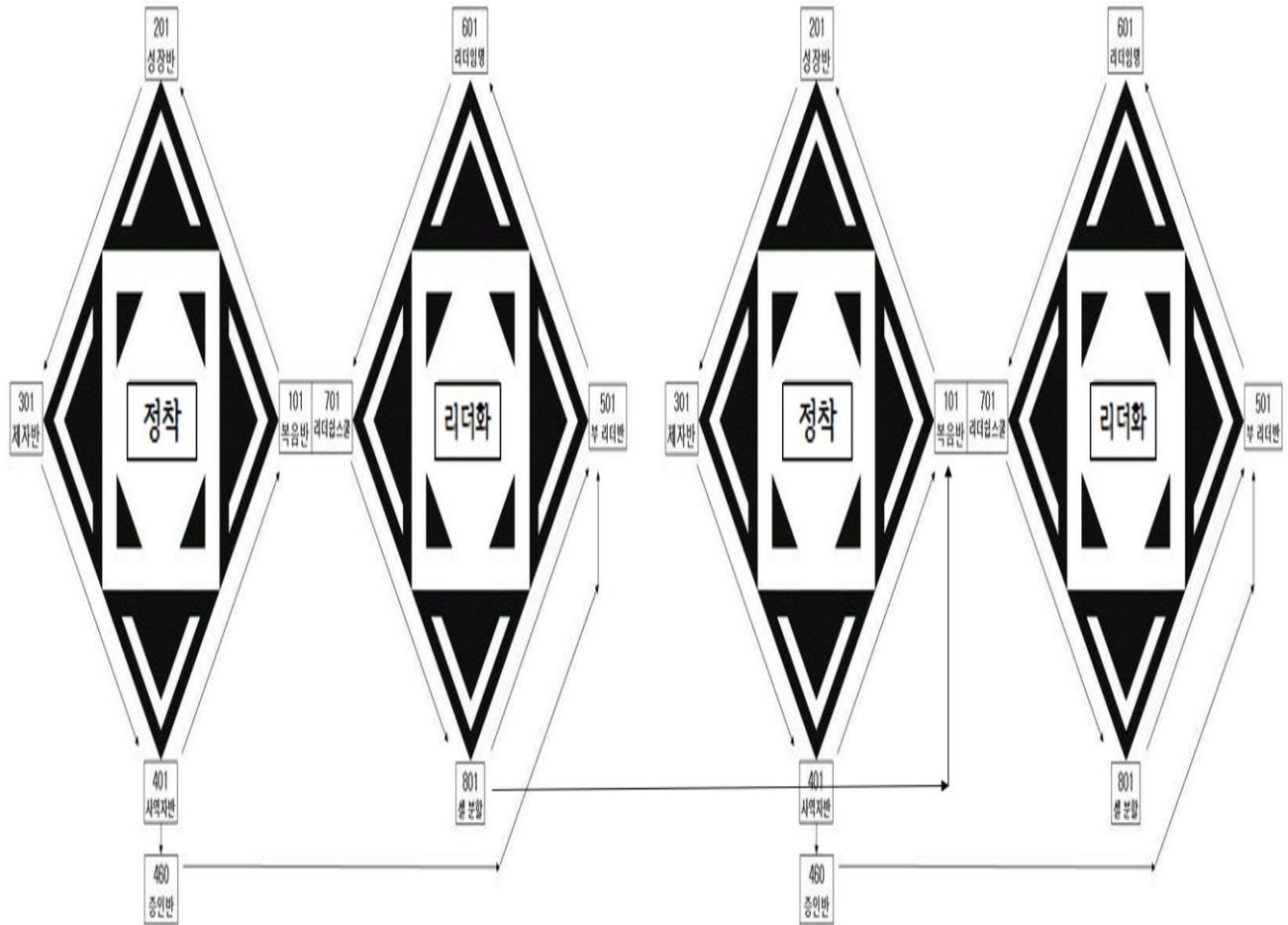


그림 5-3. 포다이아몬드 제자화 재생산 훈련도  
(Four Diamond Discipleship Reproduction Evangelist diagram)

제임스 팩커는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또 오늘날의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전

교회에 부과된, 즉 개별적으로 전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명령이다.”<sup>159</sup> 다시 말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받들어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3년 사역구조를 본떠 위의 그림과 같은 전도자 재생산 3년 프로그램(3-Year Reproducing Evangelist Program)를 설계했다. 실제 교회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목표, 단계, 훈련, 내용, 평가 방식까지 완전한 커리큘럼 형태로 구성했다. 핵심 목표는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우는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3년 과정으로 예수님의 제자화 사역의 세 단계(부르심→훈련→파송)를 반영했다.

#### A. 3년과정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훈련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 사역을 교육학적 모델로 삼아, 제자훈련의 흐름을 ‘신앙 기초 확립-성장파 사역훈련-지도력 개발과 재생산’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파송하신 사역의 자연스러운 진행 흐름과 대응한다. 이러한 병행 구조를 통해 훈련생은 단순 교리 학습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새로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재생산적 사역자로

---

<sup>159</sup> 도원욱, 『행복을 말하다』 (서울: 제이콥스 리더, 2021), 28.

성장하도록 의도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예수님의 3년 제자화 훈련을 바탕으로 3년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을 만들었다.

연차	프로그램 단계	주요 코스(주차)	핵심 목표	예수님 사역과의 대응
1년차	신앙기초 확립 & 기본 제자도	101 복음반 (1-6 주) 201 성장반 (7-18 주) 301 제자반 (19-52 주)	회심, 구원의 확신, 말씀·기도·예배의 경건훈련 확립, 제자도 기초 형성	공생애 1년차 - 제자 부르심, 기초 교훈, 초기 사역
2년차	영적 성장 & 사역훈련	401 사역자(사도)반 (53-66 주) 460 증인(전도자)반 (67-78 주) 501 부리더반 (79-104 주)	소그룹 사역기술 강화, 전도훈련, 부리더 실습 사역	공생애 2년차 - 12 제자 세움, 산상수훈, 둘씩 파송, 전도 실습
3년차	지도력 개발 & 재생산	601-801 셀리더로 활동	정식 셀리더 사역, 리더십 훈련,	공생애 3년차 - 집중 교육, 발

		및 셀분할 (105-156 주)	제자화된 재생산 전도자 파송	씻김, 대위임령, 파송
--	--	----------------------	--------------------	-----------------

표 5-1.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

본 제자훈련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 사역을 현대적 제자훈련 체계에 적용한 것으로, 회심을 시작점으로 하여 제자화 전도자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 통합적 양육 시스템이다. 첫째, 1년차는 신앙기초 확립 단계로서 회심과 구원의 확신, 경건생활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초 진리를 가르치신 사역과 병행된다. 이 단계의 교육적 핵심은 영적 유아기에서 영적 청년기로의 전환을 돕는 것이다.

둘째, 2년차는 영적 성장과 사역훈련 단계로, 훈련생은 소그룹 리더십, 상담, 전도, 팀 사역 등 실제적 사역 기술을 익히며 부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천국 비유를 통해 제자도를 심화시키시고, 제자들을 둘씩둘씩 파송하여 사역을 실습하게 하신 시기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이 단계는 지식 중심의 제자도에서 실천 중심 제자도로 전환되는 결정적 훈련 과정이다.

셋째, 3년차는 지도력 개발과 재생산 단계로, 훈련생은 정식 셀리더로 임명되어 실제 사역 현장에서 1년간 리더십을 수행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말기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대위임령을 선포하여 그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본 프로그램도 훈련생을 ‘보냄 받은 자’ (apostolic leader)로 세우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 훈련생은 새로운 부리더를 세우고 소그룹을 재생산함으로써 제자(재생산 전도자) 배가 운동의 실제적 주체가 된다.

### 1년차 세부 구조 - 신앙기초 확립 단계

항목	내용
프로그램 단계	신앙기초 확립 & 기본 제자도
주요코스 (주차)	101 복음반(1-6주), 201 성장반(7-18주), 301 제자반(19-52주)
핵심 목표	회심 확립, 구원의 말씀·예배·기도 중심의 경건생활 습관 형성
예수님의 사역대응	공생애 1년차 - 제자 부르심, 기초 가르침, 초기사역

표 5-2. 1년차 세부 구조

표 5-2는 1년차 과정을 ‘신앙기초 확립 및 기본 제자도 형성’ 단계로 규정하고, 새가족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도록 돕는 구조를 제시한다. 본 단계는 101 복음반(1-6주)에서 구원의 확신과 회심을 점검·정리한 뒤, 201 성장반(7-18주)을 통해 말씀과 예배, 기도 중심의 경건생활을 일상화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후 301 제자반(19-52주)은 1년 전체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 제자도의 정착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목표로 한다. 즉, 이 구조는 단기간의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회심의 확립 → 경건 습관 형성 → 제자훈련의 정착’이라는 점진적 성장 단계를 통해 신앙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1년차 사역(제자 부르심, 기초 가르침, 초기 사역)과의

대응을 통해, 교육과정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복음서적 제자 형성의 원리를 따르도록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1년차 과정은 교회의 양육 시스템에서 입문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돕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며, 이후 심화 단계의 제자도 교육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2년차 세부 구조 - 영적 성장 및 사역훈련 단계

항목	내용
프로그램 단계	영적 성장 & 사역 훈련
주요코스(주차)	401 사도반(53-66주), 460 증인반(67-78주), 501 부리더반(79-104주)
핵심 목표	소그룹 사역 기술 습득, 전도훈련(관계·현장 실습), 부리더 사역 실습
예수님의 사역대응	공생애 2년차 - 12제자 세움, 산상수훈, 들씩 파송과 실습 사역

표 5-3. 2년차 세부 구조

표 5-3은 2년차 과정을 ‘영적 성장 및 사역 훈련’ 단계로 규정하며, 1년차에서 형성된 신앙기초를 실제 사역 역량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보여준다. 401 사도반(53-66주)은 영적 성숙과 제자도의 내면화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기능하고, 460 증인반(67-78주)은 관계전도와 현장 실습을 포함한 전도훈련을 통해 복음 전파의 실제성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이어지는 501 부리더반(79-104주)은 소그룹 사역 기술을 습득하는 데서 나아가 부리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며 사역을 체화하는 실습 중심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흐름은 ‘훈련 → 적용 → 검증’의 반복을 통해 참여자의 사역 정체성과 수행 능력을 균형 있게 형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2년차 사역(12제자 세움, 산상수훈, 들식 파송과 실습 사역)과의 대응은, 본 과정이 가르침과 파송을 통합하는 복음서적 제자훈련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년차 과정은 영적 성장을 개인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공동체 사역과 전도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3년차 세부 구조 - 지도력 개발 및 재생산 단계

항목	내용
프로그램 단계	지도력 개발 & 재생산
주요 코스(주차)	601-801 리더훈련(105-156주)
핵심 목표	정식 셀리더 사역 수행, 제자 재생산 실천 및 파송
예수님 사역 대응	공생애 3년차 - 집중 교육, 발 씻김, 대위임령, 파송

표 5-4. 3년차 세부 구조

표 5-4는 3년차 과정을 ‘지도력 개발 및 재생산’ 단계로 설정하여, 제자훈련이 리더십 형성과 파송으로 완성되도록 구성한 구조를 제시한다. 주요 과정은 601-801 리더훈련(105-156주)으로, 참여자가 정식 셀리더로서 실제 사역을 수행하도록 초점을 둔다. 핵심 목표는 단순한 리더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제자를 세우고

재생산하는 사역을 실천하며 공동체 안팎으로 파송되는 데 있다.

이는 교육 중심의 내적 훈련과 현장 사역 수행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차 사역(집중 교육, 발 씻김, 대위임령, 파송)과의 대응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과 선교적 파송이라는 성경적 방향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 3년 과정은 단순한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적 제자도의 흐름을 현대 교회교육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육훈련 모델이다. 이는 교회의 장기적 성장과 사역 지속성과 예수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한 것이다.

## B. 개별 과정

연구자가 구상한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시스템을 광진교회에서 기간을 줄여 파일럿 적용(시범운영)해 보았다.

### 1. 복음반(확신반) 6주 과정: 복음의 이해와 구원의 확신 갖기

전도되어온 새신자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돕는 6주 과정으로 이때에 교회정착을 돕는 섬김이로 바나마가 붙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복음반 6주 과정을 통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한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1-2 주차는 복음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는 도입 단계에 해당한다. 3-4 주차는 통성경

이해와 십자가 신학을 다루며,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심화하도록 돕는다.

5 주차는 복음 요약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소감문 작성을 통해 학습 내용을 내면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6 주차는 수료식 및 세례식을 통해 교육의 결실을 예전으로 연결하며 공동체적 소속과 신앙 정체성을 강화한다.

주차	내용	비고
1주차	1.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나바 메칭
2주차	2.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3주차	3. 통성경의 노래	하나님의 마음 알기
4주차	4. 복음과 십자가	
5주차	5. 복음요약과 구원의 확신	소감문 작성
6주차	6. 수료식 및 세례식	세례증서 만들기

표 5-5. 복음반(확신반) 6주 과정

6 주간의 복음반 과정을 마치면 수료식과 함께 구원의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세례를 받는다. 소감문 2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 감 문

이O미 성도

살롬! 복음반 61기 수료자 이O미 성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 앞에서 복음반 6주 과정을 마친 소감을 나누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신앙과 삶 사이의 간극을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제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복음반 6주 과정은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주차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복음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너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차와 3주차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배우며, 십자가가 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넘어 제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4주차 구원의 확신 시간은 제 신앙에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 속에 있었는데, 구원이 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확실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안도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주차 통성경 노래 시간은 제게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노래를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창조에서 시작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한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지만, 통성경 노래를 부르며 성경 말씀이 제 삶 가까이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게 되니,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서 감사했습니다. 복음반 6주 과정은 제 신앙을 다시 정렬해 주는 시간이었고, 구원의 감격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지도해 주신 이O재목사님께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감문을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 소 감 문

복음반 61기 수료자 김O남 성도

안녕하세요.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복음반 6주 과정을 마친 소감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을 지나오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이 점점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복음반 6주 과정은 신앙의 기본을 다시 붙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차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그동안 제가 복음을 너무 당연한 전제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교회에 들어올 때 한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제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2주차와 3주차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배우며, 십자가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4주차 ‘복음 요약과 구원의 확신’ 시간은 제 신앙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구원이 막연한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5주차 통성경 노래를 통해 성경 전체를 한 흐름으로 배우는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 이야기라는 사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통해 성경의 줄기가 마음과 몸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며, 십자가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반 6주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과정으로 수고해 주신 천한귀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두 성도의 소감문을 보아 알 듯이 통성경 전도를 기반으로 한 복음반 교육은 기존 한국교회 전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신학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수료자들의 공통된 변화는 전도가 단순한 결신 유도나 교회 참여 확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원스토리를 삶으로 증언하는 행위로 인식**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통성경 노래는 성경 이해를 인지적 차원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반복적 암송과 음악적 체화를 통해 성경의 구조를 몸의 기억으로 내면화하게 한다. 이로 인해 전도자는 더 이상 특정 교리 문장을 전달하는 설명자가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살아낸 증인으로 서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도를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재정의하게 만든다.

참고로 광진교회에서 매년 200 명 정도의 새신자들이 확신반 6 주 과정을 수료하며 약 150 명 정도가 성장반에 진급하여 통성경을 기반으로 영성성장을 도모했다. 코로나 이후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확신반을 수료한 학생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신청자수	수료자수
2023 년도	235 명	185 명
2024 년도	250 명	204 명
2025 년도	260 명	218 명
	평균 248 명 신청	평균 202 명 수료

표 5-6. 복음반(확신반) 수료자 수

## 2. 성장반 12주 과정: 통성경 공부를 믿음의 성장 도모<sup>160</sup>

성장반 12주 과정은 확신반 6주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12주 과정을 통해 성경의 큰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건훈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설계한 양육 구조를 제시한다.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성경통독 ‘구구단’ 개관을 통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2주차부터 통독과 암기를 병행하며 훈련의 리듬을 형성한다. 3주차 이후에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적 축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줄기를 단계적으로 학습하며(모세오경-왕정시대-페르시아 시대-중간사-복음서-사도행전-공동서신), 성경 이해를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확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성경 암송 100구절, 통성경 QT 시작 등 경건생활 훈련을 포함하여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과정 중에는 양육일지 점검과 통독 암송 점검을 배치하여 학습의 지속성과 참여도를 관리하며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8주차부터 전도 실천을 시작하고, 11주차에는 전도 목표 달성과 같은 구체적 실행 과제를 포함함으로써 배움이 사역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12주차 수료식과 소감문 제출을 통해 학습과 훈련의 결과를 정리하고 공동체적 결단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차	내용	비고
1주차	O.T, 및 성경통독 구구단 개관	

<sup>160</sup>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81.

2주차	통구구단 1 단 암기시작	통성경 통독시작
3주차	1강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성경암송 100 구절 암송시작
4주차	2강 하나님 마음	통성경 큐티시작
5주차	3강 성경줄기 I 1)모세 5 경-제사장 나라	양육일지 중간점검(1)
6주차	4강 성경줄기 II 2)왕정 5 백년-제사장 나라와 선지자	
7주차	5강 성경줄기 III 3)페르시아 7 권-제사장 나라와 제국	통구구단 1 단 암송 중간점검
8주차	6강 성경줄기 IV 4)중간사 400-제사장 나라와 유대분과	전도시작
9주차	7강 성경줄기 V 5)4 복음서-하나님 나라	
10주차	8강 성경줄기 VI 6)사도행전 30 년-하나님 나라와 복음 1 세대	양육일지 종합점검(2)
11주차	성경줄기 VII 7)공동서신 9 권-하나님 나라와 복음 2 세대	전도 2 명 완료 통구구단 1 단 암송
12주차	통구구단 1 단 암송 및 수료식	소감문제출

표 5-7. 성장반 12주 과정



그림 5-4. 성장반 기도 모습

## 소감문

성장반 30기 이0순 집사

안녕하세요? 성장반 30기를 수료하는 이0순 집사입니다.

저는 성장반 12주 과정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이번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통독 구구단 1단을 배우고 암송하는 시간은 제 신앙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송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반복할수록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정리되었고,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구구단 1단을 암송하며 성경이 단순한 규범이나 교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통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를 전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성장반 과정 중 두 분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알게 되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장반 12주 과정은 제 신앙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통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감문

성장반 30기 조0원집사

저는 성장반 12주 과정을 수료하며 제 신앙의 방향이 새롭게 정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이해해 왔다는 사실을 이번 과정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통독 구구단 1단을 배우고 암송하는 과정은 제게 매우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반복하여 암송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구구단 1단을 암송하면서 성경이 단편적인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스토리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성장반 과정 중에 두 분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전처럼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 12주 과정은 제 신앙을 지식에서 삶으로, 개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확장시켜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전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통성경 전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집사의 소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통성경 기반 성장반 과정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식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경통독 구구단 1단 암송과 통성경 읽기를 통해 성도들은 성경을 단편적인 말씀 모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전도 이야기로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중심에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변화는 전도를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삶의 증언으로 인식하게 하여 실제적인 전도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3. 제자반 35주 과정 : 성경으로 무장한 예수 제자 만들기

성장반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트랙 7개 줄기를 각각 10분으로 압축하여 통성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말씀에 뿌리를 둔 예수 제자화 과정임과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35주 훈련과정이다.

주차	강의 내용		비고
1주차	OT		
2주차	통트랙	1강 통구구단 1단 암송	통성경 노래 부르기
3주차		2강 10분에 모세5경 이야기	과제물 점검표 배부
4주차		3강 10분에 왕정 500년 이야기	개인 통독 계획표 배부

5주차	10분 암송 시리즈	4강 10분에 페르시아 7권 이야기	역사 흐름 지도 · 타임라인 설명
6주차		5강 10분에 중간사 400년 이야기	개인 신앙 간증 (3분 이내) 나눔
7주차		6강 10분에 4복음서 이야기	큐티 방법 시연, 주 3회 이상 실습 권면
8주차		7강 10분에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사도행전식 교회 토의 및 적용
9주차		8강 10분에 공동서신 9권 이야기	말씀을 삶의 결단 문장으로 정리해 보기
10주차	예수 제자 되기	9강 성경의 권위	성경 신뢰 개인 고백 작성, 암송 점검
11주차		10강 하나님은 누구신가?	200구절 암송 로드맵 제시, 주별 점검
12주차		11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전도 대상자 1명 설정, 전도 대화 연습
13주차		12강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개관
14주차		13강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죄의 구조를 삶에 적용, 회개 기도
15주차		14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묵상문 작성, 감사 나눔
16주차		15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신앙 간증 나눔
17주차		16강 약속대로 오신 성령	성령의 열매 점검표 활용
18주차		17강 거듭난 사람	전도 2명 이상 실천
19주차		18강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정의를 자기 언어로 정리
20주차		19강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은혜와 행위 구분 훈련
21주차		20강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일상 속 성령 의존 사례 나눔
22주차		21강 그리스도인의 성화	삶의 변화 체크리스트 작성
23주차		22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신앙 점검, 소망 중심 교육

24주차	작은 예수 되기	23강 순종의 생활	한 주 순종 실천 과제 제시
25주차		24강 봉사의 의무	교회·가정 봉사 연결
26주차		25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말과 삶의 전도 점검
		26강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한 주 언어 사용 기록 영적 정체 진단
27주차			
28주차		27강 영적 성장과 성숙	자기성장 계획표 나눔
29주차		28강 순결한 생활	경건생활 점검
30주차		29강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가정 제사장 역할 점검
		30강 신앙 인격의 연단	고난에 대한 신앙 태도 나눔
31주차			
32주차		31강 그리스도의 주재권	삶의 영역별 주인 점검, 헌신 결단
33주차		32강 청지기직	시간·물질·은사 점검
34주차		33강 영적 전투	전도 3명이상 완료
35주차		34강 새 계명: 사랑하라	수료식 및 수학여행

표 5-8. 제자반 35주 과정

이 표는 총 35주 과정의 제자훈련 로드맵으로, 말씀 이해-신앙 고백-삶의 실천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주차 OT로 방향을 정리한 뒤, 2-9주

차는 통트랙(10분 이야기·암송) 중심으로 성경의 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며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잡는 구간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시작해 왕정·페르시아·중간사·복음서·사도행전·공동서신까지 이어지며, 성경 사건과 역사를 한 줄 흐름으로 연결 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성경 노래, 타임라인 설명, 통독 계획표 배부 등으로 이해와 반복 학습을 강화합니다.

10-23주차는 ‘예수 제자 되기’ 파트로 성경의 권위, 하나님·그리스도·삼위 일체·타락·십자가·부활·성령·구원과 성화·재림까지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개인 고백 작성, 200구절 암송 로드맵, 전도 대상자 설정 등으로 배운 내용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게 합니다.

24-35주차는 ‘작은 예수 되기’로 전환되어 순종, 봉사, 증거, 언어, 순결, 가정, 청지기직, 영적 전투, 사랑의 계명까지 삶의 영역별 적용을 다룹니다. 매 주차 비교란에는 큐티 실습, 간증 나눔, 전도 과제, 체크리스트 등 실천을 습관으로 만드는 도구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어 있는 주차는 복습·점검·나눔 강화 등으로 활용해 훈련의 리듬을 재정렬하는 완충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커리큘럼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반복 점검과 공동체 적용을 통해 제자의 삶을 실제로 형성하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그림 5-5. 제자반 수업

## 소감문

제자반 10기 김O룡 안수집사

살롬! 제자반 10기를 수료하는 김O룡 안수집사입니다.

제자반 35주 과정을 마치며 제 신앙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집사라는 직분도 받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의 신앙은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지 '살아내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봉사에는 익숙했지만,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반 훈련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통트랙 10분 암송 시리즈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많은 내용을 외울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는 10분 암송을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흐름이 하나의 원스토리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성경이 '조각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이야기'로 제 안에 자리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송은 단순한 기억 훈련이 아니라, 제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성경이 머리에 정리되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신앙이 훨씬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와 말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자훈련 과정 중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된 제자가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삶의 열매"라는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통트랙 암송으로 성경의 큰 흐름이 잡히자,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훈련 기간 동안 직장 동료와 지인 가운데 세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트랙을 통해 정리된 성경 이야기를 제 삶의 경험과 함께 나누자, 상대방도 부담 없이 귀를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제자훈련이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적 확신과 구조를 세워주는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제자반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트랙 암송을 계속 붙들며,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 소감문

제자반 10기 김O옥권사

안녕하세요 제자반 10기 김O옥 권사입니다.

제자반 훈련을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권사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해왔고, 말씀 공부에도 나를 열심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며 깨달은 것은, 그동안의 신앙이 '헌신은 있었으나 방향은 흐릿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통트랙 10분 암송 시리즈였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암송은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점점 성경의 줄기가 마음에 새겨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교회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니, 말씀 묵상도 깊어지고 기도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통트랙 암송은 제 신앙을 '감정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말씀을 외운다는 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임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의 말과 선택이 점점 더 복음적인 방향으로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제자훈련 과정 중 주어진 순종의 과제로 전도를 실천하면서, 이전에는 관계만 유지하던 이웃과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트랙을 통해 정리된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누자, 저 자신도 담대해졌고 상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훈련 기간 동안 세 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노력이라기보다, 제자훈련을 통해 준비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반 훈련을 통해 저는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권사'로 부르심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이웃,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훈련이 제 신앙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두 간증은 제자반 훈련이 신앙의 인식 구조와 실천 구조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통전적 제자화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트랙 10분 암송 시리즈는 성경 이해의 구조를 재편성하였다. 성경을 부분 지식이 아닌 원스토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제자훈련이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넘어 인식론적 변화를 유도함을 보여준다. 둘째, 말씀 구조화는 전도의 실천으로 직결되었다. 암송을 통해 정리된 성경 서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적 준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두 훈련생 모두 훈련 기간 중 구체적으로 3명의 전도 열매를 맺었다는 점은 제자훈련과 전도 회복의 직접적 상관성을 입증한다. 셋째, 직분 신앙에서 제자 신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집사와 권사라는 교회 직분의 역할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는 제자로서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이는 실천신학적으로 제자훈련이 교회 내 역할 수행을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향하는 선교적 제자도로, 말씀 암송-세계관 변화-삶의 실천-전도 열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 4. 사역자반 27주 과정 : 소그룹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전적 리더 양성<sup>162</sup>

제자반을 수료한 학생 가운데 리더십이 있어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 셀리더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표 5-9 사역자반)은 총 27주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 교회·평신도 정체성 → 소그룹 리더십 실습**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반(1-7주)은 “성령, 새 생활의 열쇠” 파트로 정죄에서의 해방, 영의 생각, 거룩한 삶의 실제, 고난과 소망 등 로마서 8장 흐름에 가까운 핵심 주제를 통해 내적 변화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 구간에서 통성경 노래, 과제 점검, 통독 시작, 큐티 시작, 간증 나눔, 암송 등으로 **개인 경건의 루틴을 세팅**합니다. 중반(8-17주)은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파트로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예배·훈련·증거)을 정리하고, 제자의 자격(위탁자·증인·증)을 통해 리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지체 의식, 은사와 사역의 관계, 사역의 장 찾기, 왕 같은 제사장 개념을 다루며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관점 전환을 이끕니다. 이 단계에서는 10분 시리즈 암송, 200구절 암송 시작, 전도 실천 점검 등으로 말씀 내면화와 증거 훈련이 병행됩니다.

후반(18-27주)은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파트로 소그룹 교육 환경, 리더십, 귀납적 성경연구(이론→실제 1·2·3), 커뮤니케이션(질문·경청)을 통해 소그룹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특히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재를 여러 주차로 반복해 다루며, 리더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축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up>162</sup> 옥한흠, 『사역훈련 I, II, II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참고.

마지막(25-27주)은 교재 인도법, 연습·실습·평가로 이어져 예비 셀리더→셀 부리더→셀리더로 실전 배치와 종합평가가 진행됩니다. 종합하면, 이 과정은 개인의 영적 기초를 세운 뒤 교회론·제자도·은사 이해로 사역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소그룹 리더로 현장 투입 가능한 사역 역량을 완성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주차		강의 내용	비고
1주차		OT	
2주차	성령, 새생활의	1강 정죄는 끝났다	통성경 노래 부르기
3주차		2강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과제물 점검표 배부
4주차		3강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통성경 통독시작
5주차	열쇠	4강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큐티시작
6주차		5강 확실한 두 가지 보증	개인 신앙 간증 나눔
7주차		6강 아무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통성경 1단 암송
8주차	교회와	7강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이해에 대한 토의
9주차		8강 교회의 존재 이유(1): 예배	예배의 신학적 이해
10주차		9강 교회의 존재 이유(2): 훈련	10분 시리즈 암송
11주차	평신도의	10강 교회의 존재 이유(3): 증거	200구절 암송시작
12주차		11강 제자의 자격(1): 전적 위탁자	전도실천 중간 점검
13주차	자아상	12강 제자의 자격(2): 증인	증인으로서의 제자 정체성
14주차		13강 제자의 자격(3): 종	종의 리더십 이해
15주차		14강 몸의 지체와 상호 사역	은사와 사역의 관계를 이해

16주차		15강 사역의 장을 찾으라	은사별 배치
17주차		16강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다	평신도 리더십의 신학적 이해
18주차		17강 소그룹 성경 공부의 교육 환경	통성경 2단 복습
19주차		18강 소그룹 성경 공부와 리더십	과제물 중간점검
20주차		19강 귀납적 성경 연구 개관	귀납적 성경 연구의 이론적 기초 이해
21주차	소 그 룹	20강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1)	소그룹 리더십 원리를 이해
22주차		21강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2)	통성경 2단 복습
23주차	환 경 과	22강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3)	질문과 경청 중심의 소그룹 소통 기술 습득
24주차		23강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질문과 경청	전도 5명이상
25주차	리 더 십	24강 소그룹 교재 인도법	예비 셀리더로 역량 갖추기
26주차		25강 소그룹 견습과 평가	셀 부리더로 실습
27주차		26강 소그룹 실습과 평가	셀리더로 실습 종합평가

표 5-9. 사역자반 27주 과정

## 소감문

사역자반 6기 최O민 안수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사역자반 6기를 수료하는 최O민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사역자반 27주 과정을 수료하면서 제 신앙과 사역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과 신학적 훈련을 통해 말씀을 알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전수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성경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며 복음과 전도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단편적인 이해와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역자반은 단순히 사역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정체성과 태도를 점검받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전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전도를 그동안 결과와 열매 중심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전도는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사역자를 재생산하는 긴 여정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성공을 숫자나 결신으로 판단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역의 방향과 구조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은 저를 개인적인 신앙인에서 책임 있는 사역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동료 수료자들과의 나눔과 토론을 통해,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돕는 사역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반 27주 과정은 제게 사역의 열매보다 사역의 구조와 지속성을 고민하게 만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배움을 따라, 한 사람을 세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제자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겸한 소감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 감 문

6기 사역자반 수료자: 정O을 권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을 권사입니다.

사역자반은 제 신앙 여정과 사역을 깊이 돌아보고 새롭게 정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김과 교육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사역의 중심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던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교회의 사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에 익숙했지만, 사역자반을 통해 가르침의 은사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함께 걸어가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도를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으로 이해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관계와 삶의 자리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 점은 제 사역관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저 자신이 먼저 제자로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제와 나눔, 공동체적 성찰을 통해 저는 저의 신앙 습관과 사역 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받았고, 이는 사역자로서의 성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함께 수료한 동료들과의 나눔은 사역을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 속에서 감당해야 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역자반을 통해 저는 사역의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소명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새신자와 성도들을 단순히 교육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제자로 세워 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자반 27주 과정은 사역자를 단순한 봉사자나 교육 담당자가 아니라, 제자화 재생산의 주체로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수료자들의 소감에서 나타나듯, 본 과정은 전도를 결과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제자를 세우는 지속적 과정으로 제 이해도록 돕는다. 특히 통성경적 접근과 공동체 기반 훈련은 사역자의 신앙 이해를 통합적으로 확장시키며, 가르침의 은사를 삶과 사역으로 연결하도록 이끈다. 이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역자반이 교회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전도와 제자화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형성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 5. 증인반 13주 과정 : 전도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재생산 전도자 양성<sup>163</sup>

증인반 13주 과정은 사역자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격적인 전도 훈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주차	강의 내용	비고(실습위주)
1주차	OT, 빌립전도학교 개괄	통구구단3단 암송 시작
2주차	1강 복음의 능력	어린이 전도
3주차	2강 좋은 군사	건널목 전도 외침 전도
4주차	3강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상가 전도 시장 전도
5주차	4강 지극히 작은 자에게	노숙자 전도 요양병원·쉼터 전도

<sup>163</sup> 변은미, 『빌립전도훈련용 1권 복음의 능력』 (서울: 빌립전도협회 2011), 3. 을 참고

6주차	5강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태신자 전도 아파트 전도
7주차	6강 사람마다 친구	사랑방 전도 경로당 전도
8주차	7강 회당장 전도	관공서 전도
9주차	8강 새신자 관리	무속인 전도
10주차	9강 가족 전도	불신 가족과 친척 전도
11주차	10강 학부모 전도	자녀 친구들의 부모님 전도
12주차	11강 구역(셀)을 통한 전도	장결자 전도
13주차	12강 생활 전도	성육신 섬김 10명 이상 전도

표 5-10. 증인반 13주 과정

이 표는 총 13주 과정의 빌립전도학교 커리큘럼으로, 복음의 핵심을 배우고 곧바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강의와 전도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에 OT와 과정 개괄을 진행하며, 통구구단 3단 암송을 시작해 말씀/복음 암송 훈련을 병행합니다.

2-5주차는 복음의 능력, 좋은 군사, 한 영혼의 가치, 지극히 작은 자 섬김을 배우며 어린이·거리·상가/시장·노숙자/요양병원 등 다양한 현장 전도를 경험합니다. 6-8주차는 포기하지 않는 전도(일곱 번까지), 관계 전도(친구), 회당장 전도를 다루며 태신자·아파트·사랑방·경로당·관공서 전도를 확장합니다. 9주차는 새신자 관리를 집중 학습하면서 대상 특성에 맞춘 접근(예: 무속인 전도)까지 다룹니다. 10-12주차는 가족·학부모·셀(구역)을 통한 전도로 이어져 가정과 관계망, 공동체

구조를 활용한 전도 전략을 훈련합니다. 마지막 13주차는 생활 전도를 정리하며 성육신적 섬김 전도를 실천하고, 10명 이상 전도 목표로 결단과 실행을 강조합니다.

## 소감문

증인반 2기 수료자 윤O경 권사

사랑하과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증인반 13주 과정은 제 신앙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으로 옮겨  
놓은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전도는 늘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영역이었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괜히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인반에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말씀을 배우며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는 새벽 시장에서 만난 한 분과의 만남입니다. 장사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서 계시던 그분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인사를 건넸고, 처음에는 무뚝뚝하시던 그분도 이내  
자신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증인반에서 배운 대로, 해결책을  
말하려 애쓰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나왔고, 그분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것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후 몇 차례 만남을 거쳐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새벽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전도가 특별한 기술이나 용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증인반 기간 동안 저는 30명 이상의 분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할수록 제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현장에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소감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감문

증인반 2기 수료자 오O화 권사

안녕하세요. 증인반 2기 수료자 오O화 권사입니다.

저는 증인반 과정을 통해 제 신앙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도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반에서 “전도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는 가운데, 더 이상 제 나이나 성격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여 마음에 계속 걸렸지만, 여러 번 발걸음을 옮기려다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증인반 시간에 배웠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던 그분이 제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 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병으로 가족을 잃은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긴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울며 기도해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지도 못했고, 제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교회로 직접 전화를 주셨고, 이후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전도가 제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만남 속에 제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인반 13주 동안 전도 현장을 다니며 저는 20명 이상의 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도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아니라 순종이 전도의 기준임을 믿으며, 남은 시간도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두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증인반 과정은 전도를 부담스러운 사명이나 기술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순종과 만남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전도 훈련이었다. 본 과정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에 서도록 돕는다. 전도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만남 속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도록 이끄는 점이 큰 유익이었다.

또한 증인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의 내면을 먼저 준비시키고,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태도를 형성했다. 전도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가 특별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일부임을 깨닫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도는 의무가 아닌 기쁨과 특권으로 재정립되며, 전도하는 성도 자신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본 연구자도 훈련시키면서 과거의 빌립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생겼던 전도동력이 다시금 부활해서 참 유익했다. 그리고 증인반 13주 과정은 교회 전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실천적이고 은혜로운 훈련 과정이라 감히 단언할 수 있다.

#### 6. 재생산 전도자반: 12주 과정으로 피전도자들을 재생산 전도자로 양성하기

재생산 전도자반은 본 시스템의 핵심훈련 과정으로 본인이 전도한 새신자에게 확신반-성장반-제자반-사역자반-증인반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이로서 자신도 평생 가르치면서 배움과 동시에 전도자로 살면서 새신자를 자신과 같은 재생산 전도자로 양육할 수 있는 지도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주차	주제	강의 내용	비교
1주	OT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개	기존전도와 차이점
2주	1강 재생산 전도자의	전도자의 소명은 개인 전도가 아니라 또 다른	결신 중심 전도 ↔ 재생산 중심 전도

	정체성	전도자를 세우는 데 있음을 이해	
3주	2강 통전도와 하나님 나라	전도를 개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 관점에서 이해	개인구원 중심 ↔ 하나님 나라 중심
4주	3강 제자화 단계 이해	확신반-성장반-제자반-사역자반--증인반의 목적과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	단회성 교육 ↔ 단계적 제자화
5주	4강 확신반 지도법	복음 이해와 구원의 확신을 형성하는 질문 중심 지도법 습득	지식 전달 ↔ 확신 형성
6주	5강 성장반 지도법	말씀·기도·QT·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학습	신앙 정보 제공 ↔ 신앙 습관 형성
7주	6강 사역자반 지도법	은사 발견과 사역 참여를 통해 섬기는 제자로 전환하도록 지도	수동적 성도 ↔ 사역 참여 제자
8주	7강 증인반 지도법	삶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육신적 전도 이해	프로그램 전도 ↔ 삶의 전도
9주	8강 가르치는 기술	소그룹 티칭, 질문형 지도, 퍼실리테이션 기술 훈련	일방적 강의 ↔ 상호작용 지도
10주	9강 영적 부모됨과 멘토링	영적 부모로서 제자를 동행하며 책임지는 관계 형성	단기 양육 ↔ 지속적 동행
11주	10강 재생산 구조 설계와 위기 대응	제자 재생산 구조를 설계하고 이탈·정체·실패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	개인 역량 의존 ↔ 회복적 시스템
12주	11강 파송과 언약	전도자 재생산 사명을 확인하고 파송을 통해 사역자로 세움	교육 종료 ↔ 사명 파송 지속교육

표 5-11. 재생산 전도자반 12주 과정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증인반, 재생산 전도자반을 모두 수료한 3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83%가 통전도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이 자신의 신앙 인식, 신앙 실천,

그리고 제자화 재생산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과정이 단순한 단계별 교육을 넘어, 통합적·재생산적 제자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표 5-11, 5-12)

설문 영역	문항 내용 요약	긍정 응답 <sup>1</sup>	보통	부정	긍정 비율
신앙 인식 변화	성경을 윈스토리로 이해하게 됨	25	4	1	83.3%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	26	3	1	86.7%
	전도를 삶의 증언으로 인식	24	5	1	80.0%
신앙 실천 변화	QT·통성경 읽기 지속	23	5	2	76.7%
	실제 전도 실천 경험	24	4	2	80.0%
	소그룹·사역 참여 증가	25	3	2	83.3%
제자화 인식	전도의 목적은 재생산이라 인식	26	3	1	86.7%
	영적 부모 의식 형성	24	5	1	80.0%
	제자화 사역 지속 의지	27	2	1	90.0%

표 5-12. 재생산 전도자반 수료자 설문조사

<sup>1</sup> 긍정 응답 = 4 점(그렇다) + 5 점(매우 그렇다)

## 요약 통계

구분	평균 긍정 비율
신앙 인식 영역	83.3%
신앙 실천 영역	80.0%
제자화 재생산 인식	85.6%
전체 평균	83.0%

표 5-13. 설문조사 요약 통계

이렇게 실천해 본 결과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훈련 시스템은 기존의 한국교회 제자화 시스템과 달랐다. 기존의 제자화 시스템은 새신자를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통해 양성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존 셀리더나 전도자 수준에 머무르는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자기 셀안으로 데리고 와서 평생같이 본인의 은사에 따라 교회에 성가대나 교사나 전도대나 주방봉사나 재정부원이나 여타 봉사자로 머물고 만다. 그리고 전도자 자신의 성장도 거기서 멈춘다.

하지만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달랐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무장, 기도무장, 성령무장, 전도무장, 리더십무장, 섬김무장 등등으로 완전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터인 전도의 장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하용조 목사님의 지론이 이것이었다. "성도가 교회에 왔으면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하라" 즉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신자가

전도되어 복음반(확신반) 성도반, 제자반, 사도반, 증인반, 재생산 전도자반을 거쳐 배우고 난 후, 직접 전도하여 새신자들을 셀(구역)에서 관리하면서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게 된다. 이로써 본인도 재생산 전도자의 반열에 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도한 피전도자(새신자) 역시 또 전도하여 새신자를 섬기고 양육하면서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둘째로 초대교회 때처럼 환란을 당하여 교회 건물이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성도들이 일당백 전도를 하는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지속성이 담보된다.

셋째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인 사도로 양성하여 이들 12제자가 또 다른 12제자 이상을 낳고 제자화 재생산 된 12명 이상의 속사도들이 12명 이상씩 전도하여 지금의 수십억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전도의 본질이자 전도의 완성인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에 집중하는 전도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 VI. 결론

### A. 요약

연구자는 통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통전도를 연구하면서 신·구약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성경적 전도의 본질을 통찰하게 되었다. 또 신약과 구약과 예수님의 전도 양상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전도 양상들을 발견하고 또 신구약이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하는 전도 방법과 전도의 완성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할 전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제자화 전도자 재생산(마28:19-20)을 지상명령으로 주고 열방 전도를 재림시까지 완성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여 재생산 전도자가 되게 하였고, 사도들도 예수님께 배운 제자화 전도자 재생산 전도를 실천했고, 속사도들도 실천하여 지금까지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땅끝 복음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급격한 역성장과 전도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방법론의 실패가 아니라, 전도의 신학적 토대와 구조의 붕괴로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는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시행해 왔으나, 그 결과는 성도의 감소, 신뢰도 하락, 그리고 제자화의 단절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전도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의미에서 이탈하여, 결신과 출석 중심의 이벤트 전도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通)성경 신학을 토대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통전적 전도 신학을

재조명하였다. 성경은 전도를 개인의 영혼 구원에 국한하지 않고,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구속사 전체 속에서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재생산 구조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 예수님의 제자 양육, 그리고 초대교회의 증인 공동체는 모두 이러한 전도 이해의 일관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연구자는 통전도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과정을 실제 교회 현장(광진교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복음반(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증인반, 재생산 전도자반을 모두 수료한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80% 이상이 신앙 인식, 신앙 실천, 그리고 제자화 재생산 의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전적 전도와 제자화 재생산 모델이 이론적 대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전도 구조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전도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구조’를 통해 교회의 지속적 성장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담보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 B. 제언

한국교회가 수축되어 버린 것은 교회가 재생산 전도자 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전도자를 양성하고 이 전도자들이 자신과 같은 전도자를 낳는 재생산 전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역성장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달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도의 기준을 ‘결신’ 이 아니라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도의 성공 여부를 결신 카드 수나 출석 증가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전도자가 또 다른 전도자를 세워내는가**를 전도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지상명령에서 명하신 전도의 본질이다. 둘째, 성경 교육은 부분적 성경공부가 아니라 통전적 성경 이해로 전환되어야 한다.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해할 때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증언**으로 회복된다. 통성경 기반 교육은 전도의 지속성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토대이다. 셋째, 교회는 ‘전도 행사’ 를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도자를 길러내는 학교’ 가 되어야 한다. 복음반(확신반)-성장반-제자반-사역자반-증인반-재생산 전도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자화 구조는, 성도를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 세우는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형성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전도로 돌아가야 한다. 전도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장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며 증언하는 삶이다. 이러한 전도가 회복될 때, 교회의 윤리성과 공공성 또한 함께 회복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역성장 위기는 전도의 위기이며, 전도의 위기는 곧 **제자화의 위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님의 전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통전적 전도인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에 충실할 때, 한국교회는 서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계위원회에서 밝힌 엄청난 현장의 역성장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뿐 아니라

G12(D12)에서 말하는 제자훈련에 기반한 재생산 전도자 양성을 통한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통전도 제자화 재생산 전도자 양성 모델**이, 한국교회가 역성장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신학적·목회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국내서적

- 도원욱. 『전도를 말하다』. 서울: 제이콥스 리더, 2021.
- . 『행복을 말하다』. 서울: 제이콥스 리더, 2021.
- 민경설. 『가슴이 두근두근』. 서울: 규장, 2025.
- .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영성』.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능력』.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 . 『전도동력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 . 『전도이력카드 수첩 광진교회 전도특공대』. 서울: 미래목회연구원, 2016.
- .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 서울: 미래목회연구원, 2024.
- .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의 역동성』.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2007.
- 박수암. 『신약주석: 요한계시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박지웅. 『엘리야는 길을 안다』. 서울: 더드림, 2015.
- 변은미. 『빌립전도훈련용 1 권: 복음의 능력』. 서울: 빌립전도협회, 2011.
- 옥한흠. 『사역훈련 I · II · II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 . 『제자훈련 I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 이상은. 『한한대자전』. 서울: 민중서림, 1992.
- 이상환. 『신들의 신 예수: 그리스-로마의 눈으로 신약의 예수님 보기』. 서울: 도서출판 학영, 2025.
- 이찬수. 『감절의 영감을 주소서』. 서울: 미래목회연구원, 2011.

-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 .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23.
-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20.
-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 『통통성경』. 서울: 통독원, 2018.
- .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3.
- .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20.
- . 『통이다 LET' S 通』. 서울: 통독원, 2009.
- .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서울: 통독원, 2018.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하도균. 『전도 바이블』. 서울: 도서출판 소망, 2023.

### 번역서적

- Bivin, David.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이상준 역. 서울: 이스트윈드, 2023.
- Bosch, David J. .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 Coleman, Robert E. .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3.
- Copedge, Allan. 『우리는 제자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김병제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Gilbert, Larry. 『팀전도 전략』. 송계성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3.
- Kreider, Alan.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김광남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5.
- Silvoso, Ed. 『기도전도』. 김한성 역. 서울: 토기장이, 2001.

- Stark, Rodney.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22.
- Sweet, Leonard.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Thompson Jr., W. Oscar, and Claude V. King. 『관계중심 전도』. 이혜림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4.
- Tiedeberg, Lois. 『랍비 예수』. 손현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8.
- Tiedeberg, Lois, and Ann Spangler.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 손현선 역.  
서울: (사)사랑플러스, 2019.
- Wagner, C. Peter. 『피터 와그너의 제 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한울출판사,  
1993.

### 학위논문

- 박병호. 『통(通)성경과 무교회 지역 전도: 한시미션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Drew Theological School, 2024.
- 백만숙. 『평신도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도역량강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2014.
- 이문장. 『통성경 포물라 적용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Drew Theological  
School, 2016.

### 학술논문

- 김남식.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 『신학과  
실천』 46 (2015): 492-496.
-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94 (2018): 457-  
459.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 방법에 관한 고찰.” 『고신신학』 6 (2004): 143-145.

<https://www.kirs.kr> (최종접속: 2025.07.29).

## 신문/웹기사

(편집자). “주승중 목사 초청/뉴질랜드 알파크루시스칼리지 세미나.”

『크리스천라이프』, 2023.03.26. <https://christianlife.nz/archives/23260>.

강준민. “밀줄을 그어 가며 책을 읽는 지혜.” 『기독일보』, 2023.07.17.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18729/20230717/>.

백상현. “조병호 성경통독원장 ‘성경 66 권을 덩어리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 『국민일보』, 2017.12.1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694>.

임성국. “10 교회 중 7 곳 100 명 이하 30 명 이하…” 『한국기독교공보』,

2025.08.01. <https://www.kd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4>

조병호. “성경 66 권을 덩어리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국민일보』, 2023.06.07.

## 강의/세미나/내부자료

(광진교회). “광진교회 신문 166 호.” 2024.04.28.

—. 『광진교회 2024 년 요람』. 2024.

김영래. 강의. 2024.07.16.

—. 강의. 2024.07.18.

—. 강의. 2024.07.19.

민경설. 화요 전도특공대 강의. 2024.08.20.

안순영. “3 시간 돌과 연속 기도회 실시.” 『광진교회 계간지』, 2025.04.20.

조병호. “통성경 노래.” 악보 사진. 성경통독원 홈페이지.

<http://tongdok.net/main/sub.html?pageCode=57>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Hankwi Chun

Place and Date of Birth: Jeonbuk, South Korea, October 16, 1971

Parent's Names: Sejong Chun and Youngsoon Park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Haeseong High School</b> 88 Gyeryongsan-gil, Wansan-gu, Jeonju-si, Jeonbuk, South Korea	Diploma	Feb 18, 1990
egiate:	<b>Korea University</b>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BA	Feb 15, 1999
Gradu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04965, Republic of Korea	M. Div.	Feb 20, 2002
Graduate:	<b>Liberty Seminary</b> <b>1971 University Blvd, Lynchburg, VA 24515,</b> <b>USA</b>	Th.M.	May 14,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ankwi Chun

Name typed

March 15, 2026

date